

↓ 코스피	↓ 코스닥
2464.00 (-36.10)	677.15 (-13.65)
↑ 금리 (미국 9년)	↑ 환율 (원·달러)
2.626 (+0.041)	1412.25 (+9.35)



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
06

반려동물 친화공간 운영'

풍랑 만난 韓경제... 경기침체 속 정치 불확실성 암초

비상계엄 사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증대로 환율·가상화폐 등 금융시장 요동한은,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 국내 주식 외인 4078억 매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비상계엄' 후폭풍까지 더해져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가 커졌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4일 새벽 환율·가상화폐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외국인이 주식을 던지면서 코스피·코스닥지수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경기침체를 벗어나려는 한국 경제가 풍랑을 만난 꼴이다.

지난3일 밤 갑작스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순식간에 달러당 1444원까지 치솟았다. <관련기사 2·3·4면>

한국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는 순식간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자 '제2의 외환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날 오전 한국은행은 예정에 없던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영향을 점검하고 시장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 한은, 단기유동성 공급

한은은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과 대상기관을 확대했다.

환매조건부매매란 일정 기간 이후 정해진 가격으로 되파는(되사는)것을 조건으로 증권을 사는(파는)것을 말한다. 일시적으로 자금 공급이 어려워 부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을 우선 사는 방식으로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대상증권은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농업금융채권 ▲수산업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 등이다.

아울러 한은은 신용위험관리를 위해 자기발행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매매 대상증권에서 제외한다. 자기발행채권은 종합금융회사가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채권으로 장기자금조달에 유리한 방식이다. 대상증권의 신용위험이 한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상기관은 국민·신한·하나 등 17개 국내은행과 미즈호·ING 등 7개 외은지점이다. 7개 자산운용사와 6개 중앙회(농협·산림조합·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수협·신협), 7개 증권사(메리츠·미래에셋·신한투자·NH·하나·한국투자·한국증권금융) 등을



野 6당,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오른쪽 다섯 번째부터)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 윤종오(왼쪽 네 번째부터) 진보당 원내대표, 옹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뉴스1

포함한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외국인 팔자에 외환위기 우려 ↑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어졌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尹, 명분없는 비상계엄 선포 野 “내란죄 고발·탄핵 추진”

與 18명 계엄해제요구안 찬성표尹, 취임 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는 등 정치권에 광범위한 파장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10시 23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야당의 국회의 정부 고위 관료 탄핵 추진과 감액 예산안 처리 등 예산 폭거를 들었다. 헌법상 계엄 선포요건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다.

윤 대통령은 "중복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3일 오후 9시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지를 굽히지 않은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고 계엄사 포고령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1979년

이다. 계엄사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과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했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시민들과 보좌진이 군인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아낸 결과 4일 새벽 1시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안 본회의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약 150분이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해제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공개일정을 모두 불참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일괄 사의 표명했다. 국무위원 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새벽 본회의에 참석해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4일 오전 7시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바로 반대 입장을 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 책임자 추궁을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실물경제 충격 없도록 24시간 모니터링”

경제관계 부처 시장감시 고삐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의 표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증권시장·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을 비롯해 경제상황 전반에 걸쳐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한 계엄 시국은 다행히 수포로 돌아갔지만, 기재부 등 각 경제관계 부처가 향후 일정 기간 시장 감시에 고삐를 죄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4일 오후 사의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합동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활동, 국민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

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점검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챙기겠다”고 했다.

국가신용등급 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 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 시장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민,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이 합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고용·소비 등이 정상적으

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생업과 기업 활동을 이어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역시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계 최 부총리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이 100% 정상화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외환시장 등이 계엄령 해제 이후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음에 따라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외환시장 및 해외 한국주식물 시장은 급락세를 보이며 요동친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국회 행안위, 5일 긴급 현안 질의... '경찰 국회 진입 차단' 추궁
▲ 이재명 “尹 계엄 또 하고 국지전 벌일 수도... 함께 싸워달라” /사진 뉴스1

▲ 민주, 계엄 상황실 설치... “계엄 다시 이뤄질 수도”
▲ 6시간 만에 종료된 ‘계엄’, 자충수 둔 배경 관심



▲ 안철수 “윤, 책임지고 물러나야... 정치사 치욕” /사진 뉴스1
▲ 김동연 “명백한 쿠데타, 제정신 아닌 지도자”

국민분노 극치에 달해 탄핵 시나리오 구체화 이르면 6일 새벽 표결

‘실과극’으로 돌아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 혹은 탄핵 시나리오가 구체화되고 시점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갖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는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

◆야6당尹 탄핵소추안 제출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4일 오후 2시40분에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5일 새벽에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할 예정이다. 빠르면 6일 새벽에도 표결은 가능하다.

야6당,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국회 재적의원 200명 찬성표 필요 통과 위해 국민의힘 8명 찬성해야 헌법재판관 9명 중 현재 6명 ‘변수’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위헌·무효인 비상계엄 발령 ▲위헌적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인한 국민주권주의와 헌법수호책무 위반 ▲위헌적 계엄령 및 계엄 포고령 발령으로 인한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대의민주주의,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의 표결권 침해 또는 위반 ▲불법 준경 동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회의원의 표결권 및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 의무 위반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 의무 위반 ▲계엄법 위반 및 형법상 내란미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탄핵소추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 위법적인 계엄과 그 과정에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긴급하게 탄핵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번 주말을 넘기면 국민들이 어디를 향해 촛불을 들지 알게 될 것”이라며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할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각각 직무를 정지시키고 정치권이 해결해야 희생을 막을 수 있다는 마음”이라며 “단 1분이라도 빨리 ‘동작그만’시키는 것이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계엄 해제 찬성 18명, 탄핵도 찬성 표 던질까

대통령 탄핵은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 이어 헌

법재판소가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이 192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기명 투표로 진행된 계엄 해제 요구 안의 경우, 광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주진우·조경태·한지아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로,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내리면 이탈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만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져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여당 의원 중 첫 번째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국민에 총부리를 겨누는 마당에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당이 국민적 신뢰를 잃고 바다까지 추락했던 경험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6인 체제 헌법재판소’ 변수

야당이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이 되었으로 9명 중 6명만 구성돼 있는 것이 무엇보다 변수로 꼽힌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돼 있고, 탄핵 결정은 현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현재가 6인 체제가 됐을 경우엔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지금 시점에서 심리에 착수하지 않은 대통령 탄핵 결정의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 못 헌법재판관 후보에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 때문에 국회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한 뒤 권한대행 명의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사퇴 촉구 비상시국대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를 갖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당정대 회동... 계엄 선포 수습방안 논의

한덕수·한동훈·추경호 등 참석 ‘내란죄’ 고발 대응책 논의한 듯

무위에 그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으로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적인 국무위원의 거취는 이 회동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이번주에 표결할 예정이고,

야당이 윤 대통령과 계엄 선포 주요 담자에 대해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당정대 회동을 마치고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었으며, 총리실은 추후 별도 브리핑 방안을 논의해 공지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앞서 오전 11시에 국무위원을 소집해 내각 총사퇴 등 거취를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한편, 계엄 선포 직전 열린 지난 3일 밤 국무회의에서는 19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에서는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으며 함구하고 있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 확인을 꺼리는 것은 ‘내란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태홍 기자

“사전통보 못받아... 수십년 만에 한미동맹 시험대”

美·日·中 등 외신 반응 “중대한 우려 갖고 상황전개 주시”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한국과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 분야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자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외신들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와 함께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했다. 또, 한국 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임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에 앞서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데 계엄 조치에 관련 행정부 간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왔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 및 법치라는 공동의 원칙에 기반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중대한 우려를 갖고 최근 한국의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도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국 내 자국민의 안전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계엄령이 내려진 이후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주한 중국대사관은 공지를 통해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대사관은 “재한 중국 공민(시민)에게 냉정을 유지하고 한국의 정세 변화를 주시하면서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을 신중히 하며 공식 발표를 준수할 것을 알린다”고 전했다. /원승일 기자 won@

전문가들, 외투 유출 ‘외환위기’ 올수도

>> 1면 ‘풍랑만난 韓경제...’서 계속

이날 외국인인 유가증권시장에서 4078억원 어치를 팔았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3392억원, 174억원을 순매수하며 추가 하락을 방어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낙폭도 확대됐다. LG에너지솔루션(-2.02%)·현대차(-2.56%)·KB금융(-5.73%)·NAVE

R(-3.11%)·신한지주(-6.56%)·하나금융지주(-6.67%) 등이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1998년 외환위기를 또 다시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외환위기는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 증시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국내에 유입된 외환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돼 국가의 외환이 부족하게 되는 위기상황

을 말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져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 증시자금은 빠질 수밖에 없다.

원·달러 환율이 높은 상황은 외국인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금이탈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불확실성에 두기보다 실물(현금)을 보유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원·달러 ‘1444원→1410원’ 요동… 정치적 변동성 지속 전망

(계엄선포) (4일 15시 30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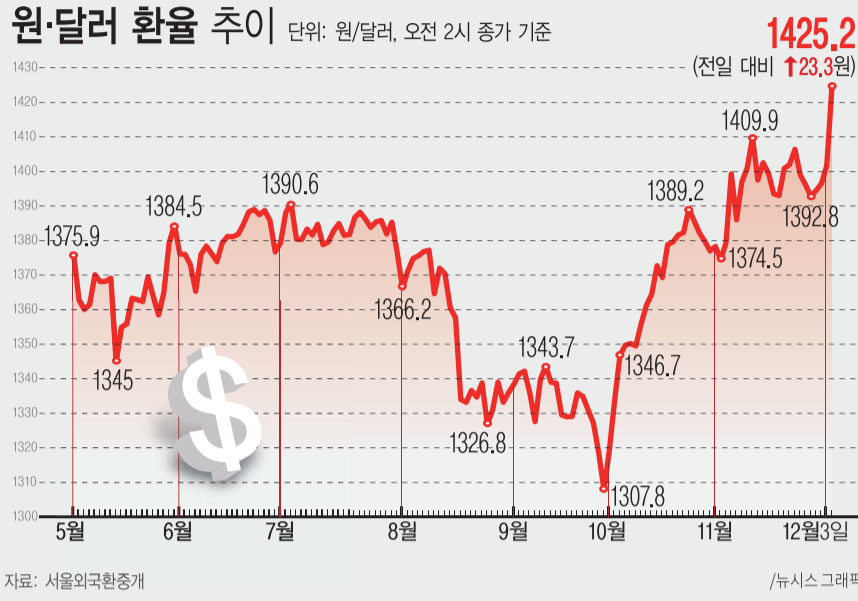
원화자산

달러, 엔 환율 최고수준 상승
계엄 해제 후 전일 수준 회복
정부 “유동성 공급에 힘쓸 것”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원·달러 및 원·엔 환율 등 주요 환율이 크게 요동쳤다. 원·달러 환율은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원화가치 하락)했고, 원·엔 환율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사태가 일단락되며 환율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정상화에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4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일 야간 거래(오전 2시 종가) 대비 6.50원(0.46%) 하락한 달러당 1410.10원에 오후 거래(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같은 날 원·엔 환율은 전일 야간 거래 대비 7.18원(0.75%) 하락한 100엔당 940.32원에 오후 거래를 마쳤다.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를 주재하고 계엄 해제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 모두 완만한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3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17.50원에 야간 거래(오전 2시 종가)를 마쳤다. 이는 전일보다 11원

(0.78%) 오른 수준으로, 2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지난 3일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장중 한 때 달러당 1444.70원까지 상승했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

다. 달러가 1440원을 넘긴 것은 지난 2009년 3월 이후 15년 8개월 만이다. 같은 날 원·엔 환율도 전일보다 6.96원(0.74%) 오른 100엔당 947.50원에 야간 거래를 마쳤다. 계엄 선포에 원·엔 환율도 장중 970.74원까지 상승했지만, 계엄 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빠르게 하락했다. 엔화가 970원을 넘긴 것은 지난 2023년 5월이 마지막이다.

사태가 일단락되며 환율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지만, 전문가들은 탄핵 논의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여파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밤 새비지 뉴욕멜론은행 시장전략책임자는 “계엄령 선포가 단기간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정치적 사건에 따른 변동성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의회와 대통령 사이의 간극과 더불어 미국의 대외 무역정책 변화는 한국의 정치인들을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성현 조지HW부시 미중관계기금회 선임연구위원은 “국회에게

엄 해제를 만장일치로 결의하면서 일부 안정을 되찾았지만,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 시스템의 취약성과 행정부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환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유동성 공급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매일 개최해 위기관리체계를 상시화하고, 구체적인 추가 시장안정 조치는 각 기관이 점검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사의 외환 건전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증권금융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환율 상승에 따른 마진콜 위험 등에도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민께서도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코스피·코스닥, 외국인 이탈 ‘뚜렷’ “정치리스크 수습 속도가 지수 좌우”

국내주식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세
“한 차레 레벨 다운 피하기 어려울 것”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여파로 국내 증시가 급락했다. 하반기 들어 두드러진 외국인 투자자 이탈 현상도 가속화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계엄령 선포 여파를 소화하며 전 거래일보다 1.44% 하락한 2464.00에 장을 마감했다. 오전 개장 당시 1.97% 급락한 상태로 시작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졌지만 점차 낙폭이 축소됐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1.91% 내린 677.59에 거래를 시작해 1.98% 떨어진 677.15에 거래를 종료했다.

이날 두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고려아연(8.37%), SK하이닉스(1.88%)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떨어졌다. 이차전지주도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 코스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2.02%, 코스닥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2.83%, 3.39%씩 하락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 우려가 투자 심리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다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에서 긴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코스피 낙폭은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분간은 코스피 약세 압력을 피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 리스크, 경제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그동안 한국은 무디스 기준으로 상위 세 번째인 ‘Aa2’ 등급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해당 등급에 변화가 발생한다면 한국주식을 보는 해외 투자자의 시각도 변할 수 있다”며 “신용등급이 변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화 약세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외국인의 한국 증시 회피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



4일 서울 중구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2500.10)보다 36.10포인트(1.44%) 내린 2464.00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690.80)보다 13.65포인트(1.98%) 하락한 677.15에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일보다 7.2원 오른 1410.1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하반기 들어 국내 증시는 글로벌 주요 지수에 비해 부진한 성적을 내며 상승 흐름에서 소외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14주 연속 코스피를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간에만 약 19조 원을 팔아치웠으며, 이날도 코스피에서 약 4100억원을 털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 자산의 매력도 약화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불가피하며, 한국의 대외 신뢰도 약화도 원화의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며 “단기적으로 대내외적 지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용찬 iM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에서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와 한 단계의 레벨 다운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매도 규모는 우려보다 크지 않다”며 “외국인 자금이탈 확대 가능성은 정치 리스크가 얼마나 빠르게 수습되는냐에 달려 있고, 수습이 되면 증시도 안정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투자자 몰리며 거래소 일시 마비 ‘역김치프리미엄’ 30분 34% 등락

가상화폐

비트코인 한때 8800만원선까지 하락
빠르게 회복… “침체기는 오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갑작스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급락했지만 4일 오전 1시계 계엄 해제 발표 후 시장이 안정되면서 이전 가격으로 회복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해프닝일 뿐 장기적으로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오후 11시 한때 8826만6000만원까지 하락하면서 계엄선포 이후 30분 만에 33.9%가 폭락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팔기 시작했고, 점차 급락장으로 변하면서 패닉셀이 나타났다. 비트코인 가격이 30분 동안 30% 넘게 하락한 적은 전무하고, 하루 새 30% 하락한 적도 없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계엄령 선포 이후 35% 하락한 380만원까지 떨어졌고, 리플(52.4%), 솔라나(39.8%), 도지코인(45.4%), 월드코인(30%) 등도 폭락했다.

당시 가상자산 시장은 비상 계엄령 충격에 국내만 출렁였다.

해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등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면서 ‘역김치프리미엄’이 발생했고 한때 30% 넘게 벌어졌다.

통상 원화마켓의 가상자산 시세는 해외보다 높게 책정되는 김치프리미엄(한국프리미엄)이 적용됐는데 대규모 매도세로 뒤바뀐 것이다.

계엄해제 발표 이후 가상자산시장에 다시 자금이 유입되면서 일제히 하락분을 모두 회복했고, 글로벌 시장과 간극을 좁히면서 다시 안정을 찾았다. 현재 ‘역김치프리미엄’은 0.5% 수준이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은 투자자들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마비되기도 했다.

일시적인 트래픽 증가로 애플리케이션(안드로



4일 서울 서초구 빗썸리온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이드, iOS), Open API 서비스가 지연되면서 입출금 요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스테이블코인(USDT)을 입금해, 거래를 시도하는 투자자들도 있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령 후유증으로 향후 가상자산시장의 침체기를 예상한 투자자들이 많지만 전문가들은 침체기는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주식시장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겠지만 가상자산시장의 경우 외국인의 거래가 불가하기 때문에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단기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그 폭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승 코빗리서치 센터장은 “가상자산의 가격은 2~3시간 만에 국제가격으로 빠르게 회복됐고, 급등락은 정치상황과 함께 단기적 ‘해프닝’이 됐다”며 “정치 상황으로 가상자산시장의 장기적 전망은 어렵지만 글로벌시세 발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K-산업, 긴급 경영체제 본격 돌입... '리스크 관리' 최우선

정부,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지원 강화
정부-기업, 공급망 안정화 등 협력
반도체, 비용증가 대비 안정책 마련
정유, 해외 신뢰도 회복 방안 모색
조선, 재무 리스크 점검·대응 박차

비상 계엄령 사태로 국내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율이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사업 구조상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내 제조업은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고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수적으로 환율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삼성, LG 등은 최근 실적 악화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리스트에 이어 계엄령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대내외 정치 리스크로 인한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4일 삼성, SK, LG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은 계엄령이 해제됐음에도 비상 경영진 회의를 긴급 소집해 현황을 점검하는 등 그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환율 급변동에 민감하게 반영되는 데다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 차질 등으로 인한 대책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부분의 주요 기업은 비상계엄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대표들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해제된 만큼 대책 회의에 돌입한 것 외에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인 근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외환시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원/달러 환율은 40원 가까이 급등하며 144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원/달러 환율이 상승폭을 줄였다.

금융 업계 관계자는 "환율이 한때 급등했던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빠르게 회수했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리스크가 단순히 시장 충격에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기초 체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 말했다.

◆비상회의 소집 "대응책 논의"

반도체 산업의 경우 중간 부품류 수출이 많은 업체인 만큼 계엄령 사태에 따른 정치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이 장기화 할 경우 국제적 공급망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원자재인 웨이퍼와 등 핵심 소재를 수입해야 하는데, 환율이 상승하면 조달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그룹은 이날 오전 최창원 SK수펙스추진협의회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그룹 차원의 사장단 회의 진행했으나 SK하이닉스에 국한한 회의는 따로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공장들은 모두 정상 가동 중"이라며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장치 등 대책을 마련한 만큼 대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LG는 날 오전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개별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환율 및 금융 시장 동향을 살피며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LG는 국회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근무하다 보니 상황이 악화될 것을 고려해 문자를 통해 재택 등 유연 근무를 권고했다. LG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상황 악화를 대비해 재택근무 등을 권유했다"라며 "재택근무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인원들은 기존대로 회사에 출근해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 업계는 리튬, 니켈 등 필수 광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정치상황보다는 해외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조 단위 규모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원화 가치가 하락된다면 투자 비용 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선, 철강 업계도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서도 정상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HD현대는 오늘 오전 7시반 긴급 사장단 회의를 소집했다. 긴급 소집된 사장단 회의에서는 향후 발생 가능한 경제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각사별 대응전

략을 수립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HD현대 권오갑 회장은 "국내의 상황이 긴박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사 사장들은 비상경영상황에 준하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특히 환율 등 재무리스크를 집중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전 박일준 상근부회장 주재로 임원 대책회의를 열고 기업들의 정상적 경영활동 지원책 등을 논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내부적으로 경제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석유 등 정치리스크 확대 우려

가장 환율에 예민한 업종인 정유 항공 업종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가 발생한다면 환율의 급등락은 물론 해외 시장의 신뢰도가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약 3조를 넘어서는 외화부채가 있는 상황에 원달러 환율이 10원만 올라도 270억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다. 정유업계 또한 원유 구입 비용이 증가하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에 반도체 업계 물론 국내 산업 전반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도 OLED 패널 제작에 필요한 특수화학물질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혼란 속 급증한 생필품 '사재기'... 통조림·라면 매출 3배 상승

계엄령 발효 후, 50대~60대 중심 증가
즉석밥 70%·라면 50%·주류 30% ↑
업계 "생필품 판매 급증 일시적 현상"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여파에 소비자들 생필품부터 챙겼다. 계엄이 선포되자 오후 11시 이후 통행금지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면서, 비상계엄 후 약 1시간 동안 사재기 현상이 일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편의점에서 생필품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A 편의점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부터 4일 자정까지 전 점포 기준으로 전주 동일 요일 및 시간대 대비 생수, 즉



서울 시내 한 편의점 내부. /뉴시스

석밥, 통조림 등 생필품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통조림 판매량은 337.3%, 봉지면은 253.8%, 생수는 141.0%, 즉석밥은 128.6%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책가에 위치한 편의점을 중심으로 생필품 구매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며 "현장 직원들에 따르면 50대~60대 고객들의 수요가 특히 높았다"고 설명했다.

B 편의점도 같은 시간대에 전일 대비 통조림 및 라면 매출이 3배 증가했고 생수·즉석밥류와 휴지 매출도 2배 가량 상승했다. C 편의점 역시 동시간대 전일 대비 생수 매출이 40%, 햇반 등 즉석밥류가 70%, 라면과 주류가 각각 50%, 30% 증가했다. D 편의점에서는 통조림 매출이 75.9%, 햇반이 38.2%, 생수가 37.4%, 라면이 28.1% 늘어나며 생필품 위주로 매출 상승이 나타났다.

이 같은 사재기 현상은 혼란한 상황

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되며 시민들의 불안을 키운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민 고 모 씨는 "혼자 살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니 온갖 상상이 다 들었다"며 "11시 이후 통행이 제한되고 물품이 제한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어 급히 라면 한 박스를 구매했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맘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계엄령 선포 직후 마트에서 물건이 동나는 줄 알았다", "전쟁이 난 줄 알았다" 등 시민 반응이 쏟아졌다.

일시적인 매출 상승은 있었지만, 이를 사재기 수준으로까지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매출이 잠시 증가하긴 했지만, 사재기라고 부를 정도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그시간대 생필품 매출이 잠시 오르긴 했으나 배송에 차질 있었던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유통업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택근무에 돌입하거나 특별한 지침을 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밤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상황을 주시했을 뿐, 재택근무나 현 상황 대비 특별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명령 불복 시 처단?'... 의료계 "독재는 물러나라" 분노 폭발

'반민주적 행태에 참담하다' 비판
의료인 복귀 명령에 강한 반발 일으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밤 '사직 전공의 등 의료인 복귀 명령'이 포함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이번 포고령(제1호)에 사직 전공의 등 의료인의 복귀를 명령하는 항목이 포함되고 명령을 불복하면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참담하다'며 분노가 쏟아졌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시작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에 사직 전공의, 의대 교수,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후보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계엄사령부(계엄사)가 전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밝힌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한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

다'는 내용이 담긴데 따른 것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제가 돌아갈 곳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비상 계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다칠 경우, 의사로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치료할 것"이라면서 "독재는 그만 물러나라"고 말했다.

전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간 의협 차기 회장 후보자들도 비상계엄 사태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의협 전 회장)는 SNS를 통해 "울고 싶은데 차마 혼자 울지는 못해서 뺨 때려 달라고 애걸 복결한 꼴"이라면서 "오늘부로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은 데드덕(레임덕보다 심각한 권력 공백 현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주대표는 "그럼에도 의료노동단의 유일한 해법은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이라고 밝혔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역시 SNS를 통해 "2025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처단 당해야 할 것은 이런 말을 하는 자"라고 비판했다.

또 "어불성설의 계엄 선포로 의사들은 소위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이 같은 일을 10개월째 당하고 있다"면서 "근거도, 국민적 합의도 없이 강행하는 의료개혁을 당장 멈추고 정상적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새출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사직 전공의 등 의료인 복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 "해당 항목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세상을 바꾸는 금융

건강한 일상부터

시니어의 모든 행복이 꼭~이어지도록

#1 시니어케어 편

하고 싶은 것이 더 많은
시니어들을 위한 헬스케어부터

평안한 노후를 위한
라이프케어 서비스까지

건강한 일상, 시작부터 끝까지
KB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시니어의 인생을 더 든든하게
Korea Best
KB금융그룹

평안한 삶까지

[KB골든라이프케어]



도심형 실버타운, 평창 카운티
세심한 컨시어지 서비스와 편의성을 갖춘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도심 속 편안한 시니어 라이프 제공



선도적 요양 시설, 서초/위례빌리지
가족과 가까운 '서초', '위례'에서 시니어를
위한 쾌적한 환경과 간호/재활/케어 서비스 제공
*은행, 광고, 강동 개소 예정

[KB체크플러스]

의료기록을 기반으로 시니어들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KB국민은행 | KB손해보험 | KB라이프
KB증권 | KB국민카드 | KB자산운용 | KB캐피탈 | KB부동산신탁 | KB저축은행 | KB인베스트먼트 | KB데이터시스템

*b KB금융그룹

헬스케어·보험 등... 반려동물 시장, 미래 먹거리로 '쑥쑥'

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

에이아이포펫-NH농협은행 '맞손' 반려동물 라이프케어 서비스 제공 동화약품, 핏펫에 50억 전략투자 동물의약품 연구·개발 계획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육박하면서 관련 국내 대기업들도 해당 사업에 너도나도 뛰어 들고 있다.

과거엔 사료, 간식 등 반려동물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만 국한됐다면 최근엔 AI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건강서비스, 보험, 장례식장까지 활동범위가 대폭 늘어났다.

기업들은 반려동물 분야 관련 스타트업들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 하는 게 목표다.

스타트업들은 대기업들이 인프라를 활용, 기업은 스타트업들의 기술력을 통한 제품 개발, 레퍼런스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반려동물 사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 기업간 협력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건강에 관심을 갖는 반려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KB경영연구소가 반려가구 1000곳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가장 큰 관심사'를 조사한 결과 55% 이상이 '건강관리'를 꼽았다.

정부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도 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헬스케어 스타트업 에이아이포펫은 지난 5월 NH농협은행과 반려동물 사업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NH농협은행과 에이아이포펫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이아이포펫



오태환 펫닥 대표(사진 왼쪽)와 손정엽 KT Device 사업본부 상무. /펫닥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열린 출범식에 (왼쪽부터) 김성정 강릉시지원봉사센터장, 정연옥 대구시지원봉사센터장,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 상무, 하운철 연암대학교 교수, 김동훈 더프라이스 이사가 참석해 결의를 다지는 모습. /LG유플러스

농협은행은 에이아이포펫과 협력해 하반기 중 NH농협은행에서 AI 기반 자가 건강체크, 수의사 상담, 원격진료 등을 포함하는 '반려동물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사간 서비스 연계, 각 플랫폼 내 교차마케팅, 반려동물 신사업 등을 공동 추진한다.

앞서 에이아이포펫은 지난해 10월 삼성화재와도 제휴를 맺고 삼성화재 다이렉트 앱을 통해 '티티케어'의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화약품은 반려동물 건강관리 기업인 핏펫에 50억 원을 투자했다.

동화약품은 전략적 투자를 통해 핏펫

통신3사, 패스에 반려동물 정보 추가 SKT, AI 기반 동물영상 진단 보조 KT, 적정 사료량 측정해 비만관리 LGU+, 재난 상황 특화 구호소 운영

쿠광, '로켓펫닥터 2.0' 출시 건강 상태 맞는 영양관리 서비스

이 보유한 수십만 건의 반려동물 헬스케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126년 전통의 의약품 개발 노하우와 대규모 의약품 제조 역량으로 동물의약품을 연구·개발할 계획이다.

핏펫은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간편

검사 서비스, 건강맞춤 커머스, 동물병원 찾기 등 다양한 반려동물 건강관리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국내 통신사들도 반려동물 사업에 적극적이다.

본업의 성격에 맞게 AI기술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먼저 통신 3사는 패스에서 반려동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했다. 반려동물 확인서비스에는 동물 등록번호와 이름, 성별, 품종, 중성화 여부 등 반려동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 사용자에서 식별에 이용할 수 있는 QR코드도 함께 표

시된다.

통신사별로 보면 SKT는 AI(인공지능) 기반 동물 영상 진단 보조 서비스 '엑스칼리버'를 통해 반려동물의 엑스레이 분석, 수의사가 명확한 상태를 진단할 수 있게 된다.

KT 반려견 서비스는 반려견의 적정 사료량을 측정해 비만 관리를 돕는다. 월 1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면 연 최대 130만원 가량의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또 KT는 최근 반려동물 장례식장 '포포즈'의 운영사인 펫닥과 신규상품 사업을 위해 협력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재난 상황에서 유기·방치되는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한 특화 구호소를 운영한다. 이밖에도 LG유플러스는 반려동물 플랫폼인 '포동'의 반려견 성격 분석 DBTI(반려견 버전 MBTI) 등으로 관심을 모으며 이용자 50만 명을 확보했다.

또 쿠광은 반려동물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로켓펫닥터 2.0'을 출시하고 프리미엄 반려동물 케어 시장공략을 강화한다. 로켓펫닥터는 수의학·영양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에 맞는 사료를 추천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반려동물의 나이·체중·체형 등 프로필을 작성하고 건강체크 배변 상태·병원 진료 이력 등의 설문을 제출하면 수의사가 10분 이내로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건강 관리 리포트를 제공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반려동물 시장은 더욱 커질 것. 기업들은 반려동물 사업이 미래의 먹거리라고 판단한 것. 이를 위해 반려동물 전문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개발, 발전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OECD, 韓 경제성장률 올해·내년 예측치 하향

G20·美 전망은 모두 상향 조정 韓 올해 GDP, 2.5% → 2.3% 내년 예측치, 2.2% → 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모두 내려 잡았다. 이에 반해, 주요 20개국(G20) 협의체 및 미국 등에 대한 2024년·2025년 전망은 모두 상향 조정했다.

OECD는 4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국 및 전 세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2.3%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종전(9월 전망)의 2.5%보다 0.2%포인트(p) 낮췄다.

내년 GDP 성장률 예측치는 기존 2.2%에서 2.1%로 0.1%p 하향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올해와 내년 전망을 각각 0.3%p, 0.2%p 내린 2.2%, 2.0%로 제시한 바 있다.

OECD는 G20 협의체 평균에 대해선 각각 0.1%p, 0.2%p 올려 잡았다. 올해와 내년 모두 3.3% 성장할 것으로 봤다.

전 세계 평균의 경우 올해는 기존의 3.2%를 유지했지만 내년은 0.1%p 올린 3.3% 예측치를 제시했다. 미국은 올해 2.6%에서 2.8%로 0.2%p 상향, 내년은 1.6%에서 2.4%로 0.8%p 올렸다. 일본에 대해서는 올해 전망을 0.2%p 내렸으나 내년 수치는 0.1%p 올렸다.

OECD는 한국 경제와 관련해 "이민이 노동력 부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이 일자리 매칭을 개선하고 자녀양육의 기회비용과 노인 빈곤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에 대해선 이민자 유입 등에 힘입어 견조한 속도의 성장을 예상했다. 일본은 실질임금 상승 등에 따른 민간 소비 및 투자 증가로 내년 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美 달러화 강세... 외환보유액, 한 달 새 3억달러 줄어

한은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 지난 10월 이후 두 달 연속 감소세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억 달러 감소했다.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보유중인 다른 나라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4년 11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53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달 새 3억달러가 줄었다. 지난 10월(42억000만달러 감소) 이후 두 달 연속 감소세다.

한은 관계자는 "운용수익이 발생하고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도 증가했지만 미달러화 강세에 따라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이 감소하면서 보유액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실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10월 말 103.99에서 11월 말 106.05%로 약 2% 올랐다. 그 결과 유로화·파운드화 등 다른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감소했다. 달러화 강세의 여파로 지난달 유로 가치는 2.8%, 파운드화 가치는 2.1% 하락했다. 호주달러화도 1.1% 내렸다.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2024년 10월 말 현재, 단위: 억달러)

순위	국가	외환보유액	순위	국가	외환보유액
1	중국	32,611 (-533)	6	대만	5,768 (-11)
2	일본	12,390 (-159)	7	사우디 아라비아	4,347 (-222)
3	스위스	9,374 (-130)	8	홍콩	4,214 (-14)
4	인도	6,821 (-237)	9	한국	4,157 (-43)
5	러시아	6,316 (-22)	10	독일	3,970 (+104)

* () 내는 전월말 대비 증감액

/IMF, 각종 중앙은행 홈페이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원화와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외환보유액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포함한 유가

증권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외환보유액의 89.6%에 해당하는 3723억9000만달러를 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어 예치금 191억3000만달러(4.6%), 특별인출권(SDR) 149억달러(3.6%), 금 47억9000만달러(1.2%), IMF포지션 41억9000만달러(1%)로 구성됐다.

한편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다. 1위는 중국(3조2611억달러)이다. 이어 일본(1조2390억달러), 스위스(9374억달러), 인도(6821억달러), 러시아(6316억달러), 대만(5768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347억달러), 홍콩(4214억달러)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나유리 기자 yu115@

GREEN *Sweet* WINTER

강원 다래의 상큼 달콤함을 담은 겨울의 한 잔



다래 레드 스위트
5.9



다래 그린 스노우
ICE ONLY 6.9



강원특별자치도

우리나라 토종 과수 다래 농가와 함께합니다.

iM뱅크, 수도권 진출 속도낸다 서울·동탄에 기업금융 거점 마련

이달 중 가산·화성에 점포 출점
벤처·디지털 기업 중심 서비스

3년내 전국 14개 거점 점포 목표
지역별 산업특성 맞춤 전략 추진

올 상반기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가 수도권 진출에 속도를 낸다. iM뱅크는 12월 중 서울·화성에 각각 2·3호 역외지점을 출점하고, 지역별 산업특성에 맞춘 전략을 통해 영업망 확대에 나섰다. 기업금융을 늘리기 위한 포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iM뱅크(옛 DGB대구은행)는 오는 19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가산디지털금융센터'를 개점한다. 이는 상반기 시중은행으로 재출범한 이후 강원 원주점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을 여는 거점 점포다. 이어 이달 말에는 화성 동탄 지역에 '동탄금융센터'를 개점한다.

iM뱅크가 상반기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만큼 영업망 확대를 꾀하고 있다. 타 은행들이 판관비 절감을 위해 금융의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며 기존 점포를 통폐합하는 추세인 만큼, 신규 점포를 연달아 출점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iM뱅크는 신규 출점하는 점포들을 지역별 환경에 특화된 기업금융 전문 점포로 운영하는 한편, 1인 지점장인 '기업금융전문가(PRM)'의 활동 거점으로도 활용해 영업점 당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앞서 iM뱅크의 1호 거점 점포는 강원 원주 지역에서 문을 열었다. 기존 은행 점포와는 달리 모든 창구를 개별 상



대구 iM뱅크 제1본점.

iM뱅크

당실 형태로 운영해 고객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확보했고, 기존 시중은행이 용이 어려웠던 지역 중소기업 고객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iM뱅크의 2호 거점 점포인 가산디지털금융센터는 구로·가산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에서 개점한다. 7000여개에 달하는 벤처 기업이 위치한 지역 특성에 따라 디지털·벤처 기업 금융 특화 점포가 될 전망이다.

가산디지털단지 내 벤처 기업에는 IT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최근 판테크 육성을 통해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쓰는 DGB금융 및 iM뱅크와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이어 3호 거점 점포인 동탄금융센터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한 곳인 화성 동탄2신도시에 문을 연다. 동탄2신도시 인근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전체 화성 지역 내 기업 단지는 22곳에 달하며, 입점 기업도 2만7000개 이상이다.

아울러 동탄2신도시가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고 아동 인구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인 만큼, 기업금융 확대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 확보를 통한 소매금융 확대도 함께 겨냥하는 모습이다.

iM뱅크는 향후 3년 내 전국에 총 14개 거점 점포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iM뱅크 영업점이 없었던 충청·수도권에 집중해 우선 출점할 예정이며, 전라·부울경 지역에서도 지역 인재 채용을 진행하는 등 향후 출점을 준비하고 있다.

iM뱅크는 거점 점포 설치를 통한 기업금융 확대에 집중하는 한편, 각종 마케팅을 통한 비대면 금융·소매금융 확대에도 힘쓰는 방침이다.

손대권 iM뱅크 개인고객그룹 상무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 새로운 지점 개설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브랜드, 협력업체와 마케팅을 진행해 전국 고객들과 다방면으로 만나고자 한다"라며 "많은 혜택과 다양한 행사를 통해 수도권 소매금융 점유율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금융권, 유동성 점검 분주 뱅크런 우려 모니터링 강화

'비상계엄' 파장

주요임원 소집해 시장 동향 분석
고정자산 이탈·역머니무브 경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2금융권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코인과 환율 등 자산이 등락을 반복한 가운데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를 배제할 수 없어서다. 농·수협 등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모두 유동성 점검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새벽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주요 책임자와 임원들을 소집했다. 유동성 점검과 함께 비상계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새마을금고는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이용 비중이 높은 만큼 뱅크런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회는 유동성 점검을 이어간 결과 자금 동향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일선 금고에도 유동성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신협중앙회 또한 비상계엄 대응 회의를 진행했다.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유동성 점검 수준을 상향해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직까지 자금이동 징후는 없다. 주력 사업을 예대업무로 한정하는 만큼 은행이나 증권사 대비 자금이동 우려가 낮다는 입장이다. 이어 수협중앙회 또한 유동성에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사뿐 아니라 저축은행도 비상계엄 여파에 유동성 관리를 강화했다. SBI저축은행은 임원을 소집해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비상계엄이 미칠 시장 여파를 분석하고 각 부서별 업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여수신 잔액은 모두 일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모아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도 영업개시 후 가장 먼저 유동성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마찬가지로 주요 임원을 소집해 시장 동향을 파악했다. 대면·비대면 창구 모두 괄목할 징후는 없다는 판단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 유동성을 점검하고 거시경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상시적인 모니터링보다 수준을 강화했다"라고 했다.

2금융권 전반에 걸쳐 유동성 모니터링과 대비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여전히 고정자산 이탈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2금융권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역머니무브'다. 역머니무브란 경제 불황에 예금 등의 안전자산이 주식 등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달러 환율과 국내증시, 코인 등 자본시장이 이동하면서 예금인출시나 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은행권은 자산 보관을 목적으로 고정자금을 예치하는 반면 저축은행은 재테크를 위해 개설하기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여파가 회복되는 시기 저축은행의 고정자산이 증권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우려다.

밤사이 위기를 넘긴 만큼 유동성 악화 우려 가능성은 낮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유동성 비율은 평균 135.84%다. 법정기준 100% 대비 35.84%포인트(p)를 초과했다. 기초체력을 높여 놓은 만큼 일시적인 자금 이탈을 견딜 수 있다 분석이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카드사-PG사, 영업구역 두고 갈등

PG협회, 카드사 직승인 계약 비판
카드사, 수수료 절감·효율성 강조
당국, 법령 해석으로 중재 가능성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PG)사가 영업구역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업계 간 온도차가 뚜렷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교통 정리가 요구된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PG협회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직승인 계약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가맹점의 결제 서비스를 담당하는 PG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했다는 주장이다. 카드사가 결제 시장의 '골목상권'으로 분류되는 PG사와 밴(VAN)사의 영역에 진입하는 것이 '갑질'이란 주장이다.

PG협회는 비씨카드의 영업에 주목했다. 비씨카드가 NH농협카드 및 주요 은행계열 카드사 대상 밴(VAN) 직매입 영업을 확대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PG협회는 지급결제 시장의 성장을 위해 자체적인 투자를 계속해 왔음을 강조했다.

비씨카드는 직접 계약이 문제가 없

다고 반론했다. PG사를 거치지 않은 만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가 낮아진다는 입장이다. 가맹점과 직접 계약은 카드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며 가맹점의 연결 요청에 응한 것이라 설명이다.

카드업계 또한 PG협회의 성명서를 두고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카드사는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PG협회가 관련 업계를 '골목상권'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도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일부 PG사의 경우 신용카드사 대비 높은 수익고를 올리고 있다는 것.

비씨카드 관계자는 "가맹점들은 수수료 및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각 카드사는 결제 관련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당사가 제공하는 '거래 중계 서비스'는 카드 결제 과정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G업계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카드사와 가맹점이 직접 계약하는 '밴리스(VANless)'가 활성화하면 영세 밴사업장 400여곳이 사라질 것이

란 우려다. 아울러 카드사가 신용 등을 문제로 직접 계약을 거절했던 가맹점에 관한 담보를 PG업계가 도맡았던 만큼 직접 계약이 상도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PG협회 관계자는 "PG사와 밴사는 결국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는 '을'의 위치에 있다"며 "향후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난 30년간 가맹점을 모집하고 책임져온 입장에서 난처한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임의로 법정 수수료를 낮추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문제 소지가 없다는 판단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카드사가 가맹점 간 거래에 부가통신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임의로 수수료를 낮춘 사실이 전무하다"며 "PG협회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은 지난 2016년으로 카드업계는 보다 최근 관련 내용을 질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새 집, 브랜드 아파트 선호도 증가

10대 건설사 1순위 경쟁률
非 건설사보다 두 배 높아

올해 10대 건설사가 분양한 단지의 청약경쟁률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대 건설사(코오시엠포함)가 공급한 단지들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7.21대 1을 기록했다. 비(非)10대 건설사의 1순위 평균 경쟁률 8.67대 1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건설사별로는 삼성물산이 1순위 평균 228.49대 1로 10대 건설사 가운데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HDC현대산업개발 27.2대 1, 포스코이앤씨 23.79대 1 등이 이었다.

청약 접수 건수도 희비가 엇갈렸다. 10대 건설사 아파트의 1순위 청약 접수 건수는 97만8504건이며, 비 10대 건설사 아파트의 경우 50만2142건으로 집계됐다. 일반 공급량이 10대 건설사가 5만6855가구, 비 10대 건설사가 5만7922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던데 반해 청약 건수는 2배에 가까이 차이가 났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10대, 비 10대 건설사의 공급량이 비슷한 수준임을 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시스

안하면 최근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짙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연말에도 10대 건설사 아파트 물량이 분양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달 중으로도 10대 건설사의 분양이 대거 예정되어 있다.

삼성물산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을 분양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 광주시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일원에 건립되는 '곤지암역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2층, 4개 동 전용 84~110㎡ 347가구 규모다. /안상미 기자 smahn1@

떠오르는 '연합 LCC'... 항공업계, 매각·인수 등 변화 예고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파장
제주항공, 티웨이 등 추가행보 전망
"시장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양사 항공기가 오가고 있다. /뉴스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도 지형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우선 양사 계열사인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까지 3개의 통합으로 '연합 LCC' 탄생이 고개를 들면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경쟁 업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차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아시아항공 신주약 1억3157만주(지분율63.9%)를 취득할 방침이다. 앞서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7000억원)을 포함해 잔금 8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게 되면 양사의 합병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12월 12일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양사의 합병으로 자회사인 LCC도 통합되면서 '연합 LCC'의 등장으로 시장 경쟁력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연합 LCC는 규모면에서 공룡으로 성장하게 된다. 지난 20년간 LCC업계 1위를 지켜온 제주항공을 가볍게 따돌릴 전망이다. 연합 LCC의 지난해 기준 매출은 2조 4785억원, 승객수는 5144만 명의 규모다. 제주항공의 매출과 승객

수는 각각 1조 7240억원, 1230만명인데 이를 훌쩍 뛰어 넘는다. 보유 항공기 대수도 제주항공은 41대인 반면 연합 LCC는 총 58대가 된다.

항공 업계에서는 연합 LCC의 등장으로 3강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 LCC와 제주항공, 최근 대한항공의 유럽 노선 4개를 인수해 몸집을 키우고 있는 티웨이항공의 경합이 유력하다.

항공업계가 '규모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제주항공은 M&A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LCC를 소유한 국내 사모펀드(PEF)의 지분 매각도 예상된다. PEF가 보유하고 항공사는 이스타항공(VIG파트너스), 에어인천(소시어스PE), 에어프레미아(JC파트너스) 등이다. LCC를 소유한 PEF 대부분은 코로나19 당시 매입을 통해 최대 주주로 올랐다. 올해부터 회수 시기가 시작될 뿐 아니라 여객 수요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어 대다수 PEF는 엑시트를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제주항공은 2019년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한 데 이어 올해 4월엔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부문 인수를 추진했다. 이스타항공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면서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매각 가능성이 높다.

장거리 노선을 늘리고 있는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움직임도 업계 초미의 관심사다.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는 국내 리조트 업계 1위

대명소노그룹이 올 들어 2대 주주로 등극하며 경영권까지 넘보고 있다. 양사 모두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거리 노선을 강화하며 탈 LCC에 나서고 있다.

다만 연합 LCC 출범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부산 지역사회는 분리 매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가덕신공항 개항을 앞둔 부산시는 거점항공사가 어느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에어부산은 지난 2007년 지역 상공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 현재 부산시와 부산 지역 기업이 지분 16.1%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연합 LCC 등장은 단순히 순위 변동이 아닌 시장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공격적인 가격 정책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LCC 사이에도 인수합병 등 추가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대한상의 "65세 정년연장 시기상조"

짧은 제도 정착기간 등 우려
"은퇴자연으로 청년 취업 영향"

급격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65세' 정년연장과 관련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발표한 '일본의 고용연장 사례로 본 한국 고용연장 방안' 보고서는 "일률적인 정년연장 시행에 따라 청년 취업기회가 감소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국회 논의 중인 내용은 정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제도 정착기간이 5~8년(2025~2033년)으로 짧다는 점에

서 우려를 제기했다.

일본의 경우 25년이라는 장기간에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65세 고용을 정착시켰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시기별로 보면 ▲65세 고용연장 노력(2000년) ▲선별적 대상자 고용연장의 무화(2006년) ▲희망자 전원 고용연장의 무화(2013~2025년) 등이다.

보고서는 일자리 상황이 열악한 한국에서 일률적인 정년연장을 시행하면 기성세대 은퇴 자연으로 청년들의 취업시장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신규구인배수'가 2.28개로, 한국(0.58개)보다 일자리가

풍족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일률적 연장제도와 현저히 짧은 제도 정착 기간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2006년 '선택적 65세 고용확보 의무화'를 통해 ▲60세 정년폐지 ▲정년연장 ▲계속고용(재계약) 등 기업의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실질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인력의 노동시장 참여기간을 늘릴 수 있는 직업훈련, 고령인력 적합업무개발 등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한화시스템, '기업혁신대상' 산자부 장관상

국내 방산기업 유일 수상



한화시스템은 지난 3일 '제31회 기업혁신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병철 한화시스템 지속가능경영팀 차장(왼쪽)과 전연보 한화시스템 재무실장이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이 대한민국 대표 우주·방산 및 ICT 기업으로써 올 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성실히 수행하며 관련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제31회 기업혁신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기업혁신대상은 매년 경영혁신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에 앞장선 국내 대·중·소기업 중 모범사례를 발굴해 포상하는 행사다.

한화시스템은 우주·인터넷 통한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포용 노력 인정받아 국내 방산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한화시스템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꾸준히 행해

온 노력이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상생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확대해 국내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양성운 기자

아시아나 22일 한중 취항 30주년

30년간 양국 가교 역할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22일 중국 노선에 취항한 지 30주년을 맞는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중 취항 30주년을 기념하여 4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 제3 터미널에서 기념 행사를 가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OZ334편 베이징-인천 항공편 체크인 카운터에 행사 부스를 설치하고 경품 추첨을 하는 등 기념행사를 열었다. 또 탑승구에서는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취항 30주년 기념품도 증정했다.

지난 1994년 12월 22일 김포-베이징, 김포-상하이편을 취항하며 중국 하늘길을 개척한 아시아나항공은 30년간 양국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현재까지 중국에 최대 24개 도시 31개 노선을 운항하며 국내 최대 중국 노선 운항 항공사의 명성을 쌓았다.

/양성운 기자

현대제철, 탄소저감형 건축 모델 만든다

탄소저감형 건설장재 사용 확대

현대제철이 현대건설과 손잡고 탄소저감 건설장재 적용 등 기존 30% 이상 탄소배량을 줄이는 등 탄소중립사회를 앞당긴다.

현대제철과 현대건설은 '탄소저감형 건설장재' 사용을 늘려 탄소저감형 건축 모델을 구축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탄소저감형 건축모델은 건축물 건설단계에서 탄소배출 주요인인 콘크리트에서 탄소배출 주요인인 콘크리트 자재를 탄소저감 자재로 전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현재 유럽, 미국 등에서 탄소저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내재탄소량 저감의 핵심 방식이다.

이 모델에는 현대제철에서 생산한 탄소저감형 철근과 형강을 적용한다. 현대제철 철근, 형강은 같은 전기로 방식으로 생산된 자재에 비해서도 탄소배출량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양사는 시멘트 분야에서도 탄소저감



현대제철 전기로에서 생산한 탄소저감형 철근

형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삼표시멘트를 포함한 3사간 협의체도 별도로 구성했다. 내년 건설현장 적용을 목표로 현재 상용화 검증단계에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대건설 주요 건축물을 대상으로 탄소저감형 철근과 형강, 시멘트를 적용했다는 가정 하에 탄소배출량을 평가해본 결과 내재탄소 부분에서 기존 건축물 대비 약 30% 이상 낮아진 탄소배출량을 보여 탄소저감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한국타이어,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참여

타이어 몰드 자원순환 기술 등 확보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지속적인 혁신을 앞세워 친환경 제조 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한국타이어는 자사 중앙연구소 한국테크노돔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의 세부 과제 수요기관으로 참여해 타이어 몰드의 자원순환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타이어 몰드는 타이어에 최종 형태를 부여하는 정밀 금형을 말한다.

산업부는 '폐금형, 공구강 재소재화 및 정밀 금형 제조 기술 개발'을 과제로 선정했고, 이와 관련해 총 16개 기관이

4개의 세부 과제를 수행한다.

한국타이어는 폐기되는 타이어 몰드를 재용해해 사용할 수 있는 몰드로 만드는 전 과정에서 기술 확보에 나선다. 특히 최종 가공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여기에도 초정밀 패턴 금형 적층 제조용 분말 제조 기술을 개발하는 2세부 과제 등에도 참여한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지난해 3D프린팅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타이어 몰드 제조를 위한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해 연구용 몰드에 적용하는 등 기술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대화 엿듣고 맞춤형 광고 타깃팅?” AI 알고리즘, 개인정보 유출 위험

빅테크 광고 알고리즘 논란

대화 수집·사용자 동의 모호성 문제
구글·메타, 음성 데이터 활용 부인
전문가들 “윤리적 기준 확보” 강조

“내 목소리를 스마트폰 속 누군가가 듣고 있는 것 같아”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친구와 휴대폰 케이스에 대해 통화 후,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피드에서 관련 광고가 뜨는 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검색조차 하지 않은 제품인데, 어떻게 광고를 띄우는지 무섭다”며 스마트폰의 ‘광고 알고리즘’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처럼 많은 사용자가 소셜미디어의 광고가 자신의 대화를 엿듣는 듯한 경험을 호소하고 있다.

4일 (메트로 경제) 취재에 따르면, 구글, 메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이용자 동의 범위 외 개인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해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페이스북의 마케팅 파트너 중 하나인 미국 ‘콕스 미디어 그룹(CMG)’에서 유출된 내부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따르면, CMG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내장 마이크를 이용한 음성 데이터를 수집해 사용자 맞춤형 광고를 제작해왔다고 한다. CMG는 이를 ‘액티브 리스닝’ 기술로 광고주가 음성 데이터를 행동 데이터와 결합해 특정 소비자층을 정교하게 타깃팅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특히 자료는 음성 데이터를 수집해 광고로 활용하는 6단계 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다. 사용자의 음성을 AI가 수집·분석하고, 이를 통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가능성이 높은 소비자를 식별해 광고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CMG가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소비자가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피드에서 친구와 대화하던 내용이 관련 광고가 뜨는 것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담은 AI 이미지.

을 주요 고객으로 명시한 점이다.

구글, 메타 등은 이러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음성 데이터 활용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했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후 구글은 사태 직후 CMG를 자사 ‘파트너 프로그램’ 목록에서 삭제했고, 메타는 “휴대전화 마이크를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마존 역시 CMG와의 협력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CMG는 이번 유출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수집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사용자 동의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사용자 동의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강조하지만,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무엇에 동의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도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통해 민감 정보를 활용한 광고를 금지하고, 광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 미국도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CPA)을 통해 데이터 남용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구글과 메타에 각각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에 나섰다. 구글은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고, 메타는 사용자 동의를 불명확한 방식으로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은 한동안 잠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정보보안학과 교수는 “소비자와 규제 당국이 원하는 것은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과 윤리적 기준 확보”라면서 “빅테크들은 투명하게 광고 알고리즘에 대해 공개해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SKT, ‘첫 로밍 데이터 4배’ 이벤트 진행

최대 4만원 할인 혜택

SK텔레콤은 연말 해외 여행 시즌을 맞아 ‘첫 로밍 데이터 4배’ 이벤트를 진행한다. 최근 6개월 간 T 로밍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고객이 대상으로, 기존 ‘바로(bar) 3GB/6GB’ 요금제와 동일한 가격으로 ‘바로 첫 로밍 12GB/24GB’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행사 적용 시 ‘바로 3GB’ 요금제(2만9000원) 가격으로 ‘바로 12GB’ 요금제(5만9000원)를, ‘바로 6GB’ 요금제(3만9000원) 가격으로 ‘바로 24GB’ 요금제(7만9000원)를 이용할 수 있어 고객은 최대 4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만 34세 이하 고객은 원래 제공되던 1GB 추가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단, 0정년 요금제 이용 고객은 데이터 4배 혜택 대신 기존 제공 중인 50% 요금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이벤트는 5일부터 내년 3월 4일까지 3개월 간 진행되며, 이벤트 대상자는

공항 로밍센터, 고객센터, T월드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SKT는 네이버페이와 함께 오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 6개월 간 고객에게 2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바로 요금제’ 이용 고객이 ‘네이버페이 해외 QR결제’를 이용해 해외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하면 T로밍 1만원 쿠폰과 네이버페이 1만 포인트를 즉시 지급한다. 이벤트 기간 중 1인당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SKT는 T로밍 이용 고객을 위해 ‘클럽 T로밍’을 통해 ‘바로 1GB 무료 충전권’을 비롯해 출국 전·후로 여행자 보험·면세점 할인, 환율 우대, 택시 할인, 올리브영 5000원 할인 등 다양한 제휴 혜택을 제공한다.

윤재웅 SKT 구독CO담당은 “겨울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들이 부담 없이 T로밍을 이용할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로밍 혜택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HS효성, 임진달 부사장 사장 승진

첫 임원 인사로 조직 혁신 추진

HS효성이 출범 이후 첫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HS효성은 계열사인 HS효성더클래스 임진달 대표이사 부사장(사진)을 사장으로 승진시키고, 신규 임원으로 3명을 선임하는 등 총 9명의 임원 인사를 4일 발표했다. 그룹내 주요 사업회사에서 사장 승진자가 배출된 것은 10여년만에 처음이다.

이번 인사는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강조해 온 ‘가치·책임 경영’ 기조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회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개혁과 변화를 이끌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여 가치를 극대화 하는데 공헌하며, ▲하기로 한 일을 책임지고 실천하는 인재라는 발탁 기준에 따라 인사가 이뤄졌다.

사장으로 승진한 임진달 대표는 이번 인사에서 HS효성첨단소재의 대표이사로도 내정됐다. 임 사장은 주력 제품인 타이어코드 분야의 중국 상해 지사 근무를 시작으로 중국 산업자재 분야를 총괄하는 등 중국통으로 활약했으며 그룹의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전략본부본부장을 거쳐 타이어코드강재 PU를 진두 지휘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올해 인스타그램 트렌드 ‘자연스러움’

인스타그램 연말 결산 간담회
정제되지 않은 콘텐츠·DM 소통 확산
Z세대 60.2% 다이렉트메시지 활용

인스타그램이 2024년 한 해를 대표하는 트렌드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정제되지 않은 콘텐츠’를 꼽으며 내년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 설명했다.

4일 서울 강남구 센터필드 인스타그램 한국 오피스에서 열린 연말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메타코리아는 Z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정제되지 않은 콘텐츠’, ‘우정의 확장’, ‘안티 번아웃’을 주요 트렌드로 발표했다. Z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출생자로, 10대 초중반에서 20대 후반까지의 연령대를 아우른다.

정다정 메타코리아 홍보 총괄은 올해 Z세대의 대표 트렌드로 ‘정제되지 않은 콘텐츠’를 꼽으며, “Z세대는 ‘포



4일 인스타그램 한국 오피스에서 열린 ‘인스타그램 2024 연말결산 기자간담회’에서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메타코리아

토 덤프(Photo Dump)’를 통해 자연스럽게 솔직한 자기 표현을 즐긴다”고 설명했다. 여러 장의 사진과 영상을 무작위로 업로드해 완벽한 연출보다 일상의 자연스러움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또 인스타그램 메신저인 ‘다이렉트 메시지(DM)’가 Z세대의 주요 소통 창구로 자리 잡았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64%가 친구 소식을 확

인하기 위해, 60.2%는 DM을 통해 친구와 대화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정 총괄은 “올해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기능은 ‘DM-스토리-릴스’ 순으로 DM이 작년 3위에서 1위로 급부상했다”고 전했다.

Z세대는 스트레스를 해소법에서도 독특한 양상을 보였다. 러닝, 클라이밍 같은 활동적인 방식과 텍스트힙(Text Hip)의 유행으로 글쓰기, 독서 같은 정적인 방식이 동시에 유행했다.

박기영 메타 크리에이티브숍 총괄은 Z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기업들이 릴스와 크리에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CJ제일제당의 ‘비비고’는 크리에이터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젊고 트렌디하게 변화시켰고, 아모레퍼시픽의 ‘헬로버블’은 릴스와 뷰티 음원 등을 활용해 매출을 120% 이상 증가시켰다. /이혜민 기자

CJ올리브네트웍스, 클라우드 대외사업 확대

데브옵스 컨설팅 컴퍼티시 취득

CJ올리브네트웍스가 네이버클라우드 및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주요 클라우드 기술 인증을 획득하며 MSP(Managed Service Provider) 사업 확장을 본격화한다고 4일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최근 AWS데브옵스 컨설팅 컴퍼티시(DevOps Consulting Competency)를 신규 취득했다. 이 인증은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를 최적화하여 고객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받은 기업에 부여된다. 또 네이버클라우드 전문가인증을 서버리스 마스터(Serverless Master)와 서포트 마스터(Support Master)를 취득하며 경쟁력 있는 MSP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강화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그룹 계열사 대상의 SI 및 인프라 운영 경험을 토대로 AWS와 네이버클라우드의 기술력을 결



인천 송도에 위치한 CJ올리브네트웍스의 클라우드센터 전경. /CJ올리브네트웍스

합, MSP와 SaaS 분야 대외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자체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을 통해 그룹사뿐만 아니라 GS칼텍스 등 다양한 외부 고객에게도 효율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번 AWS 데브옵스 인증 및 네이버클라우드 전문가 확보를 기반으로 CJ올리브네트웍스는 AI 플랫폼, 온라인몰, 빅데이터, DW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은 종합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원광디지털대학교
WONKWANG DIGITAL UNIVERSITY

당신이 꿈꾸는
원더풀 라이프

원광시편 원더시대



원광디지털대학교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안내

1차 모집기간
2024.12.01.(일) ~ 2025.01.10.(금)

2차 모집기간
2025.01.22.(수) ~ 2025.02.14.(금)

모집학과

웰빙건강학부 한방건강약선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웰니스문화관광학과

한국문화학부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실용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언어치료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얼굴경영학과

다시 고개 든 '코리아 디스카운트'... 美 상장 국내기업 고전

계엄령 선포 후 패닉셀 현상 보여
쿠팡·네이버웹툰, 전날비 하락 마감
아이셰어즈 MSCI 코리아, 1.59% ↓
ADR 형태 거래 기업도 장중 약세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의 여파로 떨어진 주식을 보며 놀라고 있는 투자자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으로 인해 간밤 뉴욕증시에 상장된 한국 관련 주식들이 큰 하락세를 보였으나,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낙폭을 일부 회복했다. 이로 인해 관련 종목이나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 관련주·상품들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였던 장중에는 주가 하락을 면치 못하며 패닉셀 현상이 나타났지만, 계엄령 해제 소식과 금융당국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 발언으로 낙폭을 빠르게 줄였다.

미 뉴욕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소식으로 미 동부시간 3일(현지시간) 기준 전장 대

비 장중 22.41달러(-9.8%)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국회가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 하락폭을 일부 만회하며, 전장 대비 3.74% 하락한 23.92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에 상장된 웹툰엔터테인먼트(네이버웹툰)도 전날 대비 1.03% 하락한 증가 12.49달러를 기록했다.

계엄령은 한국 주요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악영향을 미쳤다. '아이셰어즈(iShares) MSCI 코리아'의 시세는 장중 7%가량 하락하다가 증가는 1.59% 하락한 채 마감했다. 이 ETF는 뉴욕증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대표 기업 90곳 이상을 추적하는 39억 달러(약 5조5025억원) 규모의 인덱스펀드다.

미국 주식에탁증서(ADR) 형태로 뉴욕증시에서 거래되는 다른 국내 주요 기업들도 장중 약세를 보였다. 포스코홀딩스는 약 4.36% 하락했으며, KB금융의 주가는 2.7%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한 투자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쿠팡에 투자한 한 투자자는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지만,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얼마 전 흑자 소식에 기뻐했는데, 이런 일로 주가가 하락해 당황스럽다"며 "국내 주식을 피하려고 미국 시장에 투자했는데, 결국 한국 관련 기업을 선택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게 됐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계엄령 여파가 미국 증시에는 우려만큼 크지 않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한국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이 안정을 보였고, 원화와 해외 ADR(주식에탁증서) 등이 변동성 확대 후 일부 안정을 보였다는 점은 우호적"이라고 언급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코스닥 상장사, 경영악화 속 유상증자 급증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유상증자 371건
대부분 운영자금·채무상환에 사용
악재로 작용되며 투자심리 위축

올해 경영악화로 코스닥 상장사들의 유상증자가 급증하면서 증시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증시와는 달리 국내 증시가 부진한 가운데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한국에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코스닥 시장의 유상증자는 총 37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34건보다 11%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 수는 39억170만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억7083만주)보다 약 72% 늘었으며,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본금도 지난해 8115억원에서 1조1841억원으로 약 3700억원 증가했다.

통상적으로 유상증자는 기존 주식의 가치를 희석시키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한다. 기업 실적성이 성장

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행된 주식 수만 늘어나게 되면, 주당 이익이 감소한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유상증자의 자금 사용 목적에 따라 시장 반응도 상반될 수 있다. 시설 확충이나 인수합병(M&A) 등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자금 조달이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만, 운영자금이나 채무 상환을 위한 유상 증자 방식은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그칠 수 있어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올해 코스닥에서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 대부분은 운영자금이나 채무 상환에 사용되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장 마감 이후 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오성첨 단소재의 주가는 다음 거래일인 29일에 3.29% 떨어졌다. 현대바이오역시 지난 달 15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948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후 현대바이오의 주가는 10.75% 급락했다.

현재 코스닥 기업들의 경영 상황은

악화일로로 걷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1153곳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7조8777억원, 4조3075억원으로 6.22%, 29.29% 줄었다. 여기에 코스닥 상장사들의 부채비율은 107.72%로 지난해 말(105.82%)보다 1.90% 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코스닥 기업들의 유상증자 단행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유상증자를 단행한 기업들은 대체로 재무적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어온 경우가 많은 만큼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상증자는 기업이 외부 자금을 유입시키는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를 증가시키는 기업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뜻"이라며 "유상증자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기업의 현 상황과 향후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

이복현 "정치적 불확실성에 변동성 확대될 수 있어"

확대 금융상황 점검회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상계엄 이후)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나,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시장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금융시장의 철저한 위기대응 태세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4일 금감원 임원들과 '확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비상계엄 이후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이날 오전에는 이 원장과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36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간담회 일정이 예정돼 있었으나 금감원은 이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시장 정상화 시점까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매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어 이상 징후 탐지 시 관계기관과 필요한 모든 안정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도 밝

/허정윤 기자



NH투자증권, '빅데이터 경진대회' 성료

NH투자증권이 2024 빅데이터 경진대회 '시로 미국 ETF를 발견하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NH투자증권은 전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파크원 금융타워2 본사에서 경진대회 결선 및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2024 빅데이터 경진대회 '시로 미국 ETF를 발견하다'는 지난 8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됐으며, 국내외 대학생과 대학원생 약 10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미국 ETF 큐레이션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며, 이 중 30개 팀이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상위 6개 팀이 결선에 올라 최종 수상팀이 선정됐다.

/NH투자증권

"회계정보 유용성 위해 기본법 제정 필요"

공인회계사회-회계학회 심포지엄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회계학회가 한 자리에 모인 심포지엄에서 회계정보 유용성 높이기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은 회계정보의 생산과 공시, 감사와 감독 전반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관된 회계정책을 마련하려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다양한 분야에 산재해 있는 회계 관련 법률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법인 형태와 공공·민간 부문 간 회계정보 제공 과정에서 드러난 국내 회계제도 주요 문제점을 짚어보고, 국가적 회계 기반 강화를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박 교수는 "회계정책의 일관성 유지

와 회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기영 차기한국회계학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임철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민정 인천대 교수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회회 본부장 ▲류미정 홀트아동복지회 본부장 ▲박정선 삼일회계법인 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임 교수는 "입법 단계의 저항을 대응하는 방안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교수는 "미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독립성, 전문성 등 감사기준의 체계화와 더불어 회계담당자의 편의 제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강 본부장은 "다양한 정부 부처의 이견 조율을 위해 실무추진 TF를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류미정 본부장은 "다수의 정부 부처에 각각 다른 회계 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비영리법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조선3사, 고부가선박 전략... 올해 355억 달러 수주 '순항'

HD한국조선해양 181척 수주 연간 목표치 초과 총 205.6만 달러
삼성중공업 33척 수주, 68억 달러 목표액 연간 97억 달러 수주 자신감
한화오션 42척, 81.5억 달러 수주 작년 실적 35.2억 달러의 두배 넘겨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인도한 17만4000㎥ 급 LNG운반선. /HD현대

국내 조선업계가 2024년을 한 달여 남긴 시점에서 연말 수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펼쳐 연간 수주 목표치를 모두 달성한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는 올해 들어 총 256척, 355억달러 규모의 수주를 확보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조선 3사 중 가장 먼저 연간 수주 목표치를 넘겼다. HD한국조선해양은 총 181척, 205억

6000만달러를 수주하며 연간 목표치(135억달러)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아시아 소재 선사와의 컨테이너선 4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33척, 약 68억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액(97억달러)의 70%를 채웠다. 다만 삼성중공업은 해를 넘기기 전 목표치를 채울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향후 발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및 부유식 천연가스 액화·생산설비(FLNG),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올해 수주 목표치를 채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화오션 또한 수주 확보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물론 한화오션은 올해부터 수주 목표치를 내놓지 않기로 결정했

다. 수주 목표를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저가 수주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까지 총 42척, 81억 5000만달러를 수주하며 작년 실적(35억 2000만달러)의 두 배를 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 조선사들이 우수한 수주 실적을 보인 이유로는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하는 선별 수주를 통해 수익성을 높인 점이 꼽힌다. 저탄소·탈탄소 가속화로 LNG 추진 선박 도입이 늘며 국내 조선사들이 LNG운반선, 암모니아 운반선(VLAC)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 힘을 쏟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영국 LNG선박협회 SEA-LNG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LNG 추진선은 590척으로 전체 선박의 2% 가량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22년 354척 대비 66% 증가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오는 2025년부터 국내 조선사의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고부가가치 선종

건조비중 확대와 후관가격 등 비용 하향 등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조선·해운시황분석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현재 신조선가는 지난 2021년 대비 24% 상승했으며 한국의 선박 수주잔량은 지난 2021년 대비 69% 증가했다. 설계 포함 선박 건조기간이 평균 2년인 점을 고려했을 때 2022~2024년에 고선가로 수주한 고부가가치 선박들의 건조비중은 내년부터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FLNG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 모잠비크 프로젝트 수주 예상과 더불어 미국 LNG업체 텔핀과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사들은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수주 확대를 통해 실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욱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친환경선 수요 증가와 함께 조선사들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저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라면·과자 중심 K-푸드 올해 수출 90.5억 弗 '역대최대'

농식품부, 전년대비 8.1% 늘어
 라면 10억 弗 수출, 전년비 30% ↑
 과자류 16.5%, 음료 14.9% 성장

올해 1~11월 K-푸드 수출액이 90억 달러를 넘어섬에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다. 라면과 과자·음료·쌀 가공식품의 경우 최고 실적이 두드러졌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K-푸드 수출 누적액은 전년대비 8.1% 늘어난 90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15개월 연속 성장세이자 1~11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특히, 수출 상위 품목인 라면, 과자류, 음료, 쌀 가공식품 등이 모두 11월 역대 최고 실적을 보였다.

사상 최초로 10억 달러 넘게 수출된 라면은 지난해보다 30.0% 상승한 11억 4000만 달러가 수출됐고, 6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거둔 과자류·음료도 각각 16.5%, 14.9% 성장했다.



K-푸드 해외박람회 행사장 내 한국관 모습. /농식품부

냉동김밥·즉석밥·떡볶이 등의 쌀 가공식품은 미국·중국 등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되고 인기가 지속되면서 39.3% 증가한 2억 8000만 달러가 수출됐다. 커피·피크리머·인스턴트커피 등 커피조제품은 전년대비 2.8% 성장해 누적 3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10월 인도네시아로 인스턴트커피

피 신제품이 수출됐다. 그간 제조업체 대상 커피 원료 중심의 수출에서 소비자용 커피 수출로 시장이 확대됐다. 소주, 리큐르는 미국의 주류 전문매장 입점과 중국 내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각각 3.7%, 6.1% 증가했다.

수출 규모는 아직 작지만 브라질에서는 대형 유통매장 연계 판촉을 통해

리큐르가 전년보다 216% 급증했다. 몽골에서는 한국 편의점 내 맥주와 라면의 짝궁식품 마케팅을 통해 맥주가 72% 증가했다.

신선식품은 전년보다 0.4% 증가했는데, 김치, 유자, 포도 등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치는 전년대비 3.9% 늘었는데, 미국·유럽에서 대형 유통매장 입점 및 판촉 행사를 통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포도는 생육관리를 통해 수출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됐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전년대비 20.2% 증가했다.

수출시장별로 보면, 대(對) 미국 수출은 14억 4000달러로 전년대비 20.0% 증가했다. 대 중국 수출은 13억 8000만 달러로 7.0%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의 경우, 올해 대형 유통매장에 신규 입점되면서 연말까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삼성전자 DS 산하에 'AI센터' 박순철 신임CFO 선임 정기 인사·개편 완료

삼성전자가 2025년 정기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완료했다. 경영지원실장·최고재무책임자(CFO)와 반도체(DS)부문 미주총괄에 새로운 인물을 선임했다.

인공지능(AI) 기술력 강화를 위해 DS부문 산하에 'AI 센터'도 신설했다. 이로써 주요 요직을 모두 채우고 새로운 조직까지 신설한 만큼, 앞으로 어떻게 대내외적 위기를 타개할 지 주목된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오후 후속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모두 완료하고 사업부별 조직개편 설명회를 진행했다.

삼성전자는 전임 CFO인 박학규 사장의 뒤를 이어 박순철 디바이스경영(DX)부문 경영지원실 지원팀장(부사장)을 신임 CFO에 선임했다.

앞서 박학규 사장이 사장단 인사에서 사업지원TF로 합류해 CFO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어떤 인물이 선임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1966년생인 박순철 부사장은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출신이며 네트워크 사업부, 모바일경영(MX) 사업부 지원팀, 사업지원TF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매출과 이익을 비롯해 각종 투자, 자금 계획 등 전사적인 재무를 관리할 예정이다. 또 각 부서 및 계열사들의 전략까지 총괄해 의사결정에도 참여한다.

그간 삼성전자 CFO 자리는 미래전략실 출신의 재무 경력이 있는 임원이 맡아 왔던 만큼, 박순철 부사장이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도 재무 관련 경력이 있는 미전실 출신 부사장급 임원들이 잇따라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비상사태 철저 대비... 네이버·카카오, 비상계엄 '이상무'

네이버, BCP 통해 긴급상황 대처 댓글 서비스는 잠시 비상모드 제한
 카카오, 비상경영회의서 영향 점검

45년 만에 선포된 6시간의 비상계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표 포털인 네이버와 메신저 카카오톡이 정상 서비스 상태를 유지했다. 이는 양사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철저한 보고 체계와 긴급 연락망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4일자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전국민적 연락망으로 활용되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포털 서비스는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두 포털 서비스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전 9시경, 이용자가 몰리면서

약 10분간 트래픽 급증으로 일부 서비스 지연이 발생했으나 신속히 복구됐다. 카카오톡은 별다른 서비스 장애 없이 운영됐다. 이러한 빠른 정상화는 양사의 데이터 다중화 및 분산 시스템과 비상 대응 체계로 가능했다.

네이버는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 연속성 계획)를 통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BCP는 각종 재해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매뉴얼화한 체계다. 네이버 관계자는 "3일 트래픽 폭증 당시 검색과 뉴스 서비스는 문제없이 제공됐으며, 댓글 서비스는 잠시 비상 모드로 제한되었다"며 "보고 체계와 긴급 연락망을 기반으로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판교 SK C&C IDC에서 약 2만 2000대의 서버를 운영하며, 7단계에 걸친 서비스 및 인프라 이중화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IDC(Internet Data Center)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트래픽을 제한하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다른 IDC로 트래픽을 우회해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IDC 이중화를 위해 여러 데이터센터에 서버를 분산 배치하고, GSLB(Global Server Load Balancing)를 활용해 트래픽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문제 발생 시 자동으로 해당 IDC를 차단하고 다른 IDC로 트래픽을 전환한다"고 설

명했다.

카카오는 비상계엄 직후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경영활동 영향을 점검했다. 전국민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특히 비상 상황에서는 트래픽이 폭증하는 만큼 심각한 사태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모바일인덱스 통계에 따르면 9월 기준 카카오톡 월간활성사용자(MAU)는 4498만 2002명에 달한다.

카카오 측은 "과거 2016년 9월 경주에서 일어난 리히터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던 때, 서버로 연결을 맺으려는 트래픽이 평소 대비 40~50배까지 올랐으며 카카오톡 정상까지는 2시간 이상이 걸렸다"며 "당시 경험을 토대로 비상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스케일업 향한 도전... 투자유치 기업·투자사들 열기 뜨겁다

이노비즈협회, 세번째 IR 행사
3대 1 경쟁률 속 '5개 혁신 기업'
VC·증권·엔젤투자사 관심 집중
鄭회장 "다양한 기술 사업화 필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개인정보 침해 등 법률적 이슈는 없나요?" (A 투자회사 관계자)

"현재 모든 특허는 미국과 일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원천특허를 갖고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이 있어야겠다는 사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리즈C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만큼 잘 부탁드립니다." (IR 피칭 참여 B사 대표)

4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3층 비파룸. 이노비즈협회가 마련한 'INNO-Wave IR' 행사장에 60명에 가까운 인파가 모였다.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비상계엄 선포→해제 등 국내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갔지만 투자를 받으려는 혁신기업들과 투자사들의 대화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이노비즈협회는 회원사들의 혁신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IR 행사를 마련, 이번이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앞줄 왼쪽 4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3회 INNO-Wave IR' 행사에서 투자유치 희망기업, 투자사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세번째다.

정광천 협회장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는 말로 인사말을 전했다.

정 회장은 그러면서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여러 고객층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사업화하고 우수 기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번 IR 행사는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있었다. 우수한 연구소 기업들이 '혁신의 아이콘'인 이노비즈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IR에는 ▲트윈위즈(액상 항균·

항바이러스 소재 제조) ▲로오딘(고효율 인광 청색 OLED 소재·소자 제조) ▲메디케어텍(수술용 의료기기 벤더블레이드 제조) ▲메이즈(AIoT 기반 오프라인 개인화 트래킹 서비스) ▲유틸플(AR·VR 투과용 가변필름 제조)이 참여해 회사를 알렸다.

투자사로는 기술보증기금 벤처투자금융센터, 지비벤처스, 블리스바인벤처스, 한국바이오투자파트너스, 패스파인더에이치, 선보엔젤투자파트너스, 한국과학기술지주, 하나증권 등 공공기관, 증권사, 벤처캐피탈(VC), 엔젤투자

가 두루 참석했다.

기업들 소개는 10분, 질의응답은 8분의 시간이 각각 주어졌다.

트윈위즈 김창수 대표는 "기존의 고체형 항균 소재는 분말이나 펠렛 형태로 다양한 제품이나 산업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무색 투명의 액상형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인 '트윈온(TWINON)'을 개발하게 됐다"면서 "위생과 청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스마트폰, 가전·가구 필름,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도어락, 차량용 필름, 디스플레이, 기능성페인트 등 사람 손이 닿는 모든 영역의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텍 전한용 대표는 "우리가 개발한 블레이드 일체형 내시경 수술장치는 이비인후과의 만성비염과 축농증 수술이 1차 타깃 시장"이라면서 "기존의 수술에선 블레이드를 자주 교체하고 1회용이어서 환경적 문제가 많았다. 또 포괄수거 때문에 병원이 적자를 봐야하는 등 환자, 병원 모두가 불편했다. 하지만 내년 중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제품은 기존의 단점을 극복했다. 국내 시장에 레퍼런스를 확보한 후 의료기기 유통업체와 협력을 통해 판매하고 중국, 일본, 미국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이즈 송기선 대표는 "우리가 개발한 매장 방문객 여정 수집 솔루션은 '동일인 매칭 기술'이 핵심"이라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을 구별할 수 있는 비식별처리 데이터는 개인정보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F&B매장, 대규모 박람회·전시회, 팝업스토어 등에서 온라인 마케팅과 같은 정량적 KPI(핵심성과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노비즈협회는 벤처투자사와 함께 이날 발표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혁신성 및 차별성, 시장 점유율과 매출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실질적인 투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새롭게 취임한 정 회장은 '이노비즈R&D 플랫폼 제공'이라는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 주도 R&D 과제 기획·제안과 기술혁신 이노비즈기업의 R&D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기회 제공 추진 등을 실행 과제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범 개최한 '이노웨이브(INNOWAVE)'를 확대 개편해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1회씩 총 2회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2개사가 42억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 중소기업 만족도 94%... 6년 연속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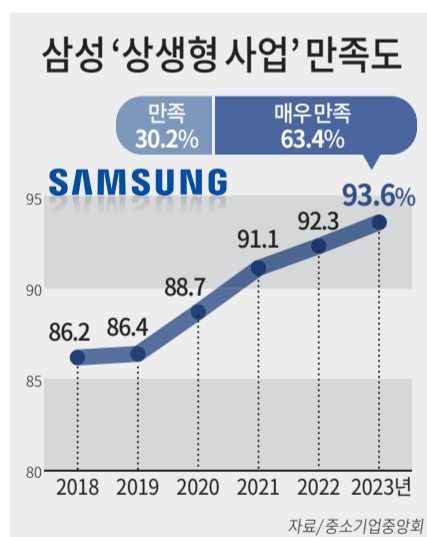
중기중앙회, 195개사 대상 설문
맞춤형 시스템·자동화 구축 '큰 힘'
지자체 지원금 확대 등 추가정책 필요

삼성이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니 달랐다.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들을 위해 도운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93.6%가 만족감을 표시하면서다.

특히 삼성이 지원사업을 시작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들의 만족도가 6년간 계속 상승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부, 삼성(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과 추진한 '2023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19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93.6%가 삼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만족'하고 있으며, 과반수 이상인 63.4%가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맞춤형 시스템·자동화 구축(43.5%) ▲제조현장 혁신(32.9%) ▲삼성 멘토의 밀착지원(21.1%) 등을 꼽았다.

관련 지원사업에선 삼성의 200여명 전담 멘토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직접 노하우를 전수하는 '현장혁신 활동'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만족

도 역시 92.4%로 5년 연속 상승했다.

지원사업을 통해 구축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MES(생산관리), ERP(기업자원관리), SCM(공급망관리), IoT(사물인터넷) 등에 대한 만족도 역시 89.5%로 높았다. 조직구성원들의 활용도(72.7%)도 높은 수준이었다.

스마트공장 솔루션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생산현장에 적용효과 높음(43.5%) ▲생산현장 모니터링 강화(37.0%)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16.9%) 등의 순이다.

또한, 참여 중소기업의 97.5%가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후 무상 A/S 요청 시 조치가 '원활했다'고 응답해 스마트공장 구축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지원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19.8%는 매출이 평균 24억1000만원 증가했다. 참여기업 10.5%는 고용인력이 평균 4.3명 증가했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정부지원금이 기업에서 목

표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데 적절했는지에 대해선 '부족하다'(52.3%)와 '적절하다'(47.7%)의 의견이 갈렸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지자체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48.8%) ▲지역별, 업종별 맞춤 지원사업 확대(21.7%) ▲기초 수준에 대한 정부지원 재개(17.5%) 등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혁신성장본부장은 "상생형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대표적인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라면서 "특히 올해부터는 스마트공장 질적 향상을 위해 고도화 단계를 집중 지원하고 기초 체력이 필요한 지역 중소기업에 '지자체 협업사업', K-푸드 육성을 위한 '식품업 지원사업' 등 단계별 업종별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팅크웨어가 연말 전사 프로모션 '아이나비 Up & Down'을 진행한다.

팅크웨어
아이나비 QXD1 Plus
연말 프로모션 진행

메모리카드 64→128GB 업그레이드

팅크웨어가 첨단 AI 블랙박스 '아이나비 QXD1 Plus'를 대상으로 '아이나비 Up&Down' 연말 전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4일 티크웨어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은 이달 말일까지 진행한다.

'아이나비 Up&Down' 프로모션은 '아이나비 QXD1 Plus' 64GB 메모리카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128GB 메모리카드로 업그레이드해 2배 용량의 무상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블랙박스 전용 보조 배터리 '아이볼트'를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이나비 QXD1 Plus'는 자율주행 플랫폼 암바렐라 CV 기반 객체 인식 알고리즘과 딥 러닝 기술을 결합한 국내 유일의 '아이나비 Vision AI'가 탑재된 최첨단 블랙박스다. 해당 제품은 50만 건 이상의 주행 데이터를 딥 러닝해 기존보다 객체와 차량 번호판을 더욱 정확하게 인식하고 촬영한다. /김승호 기자

강원랜드, ESG 우수 중소기업 포상·상생협력기금 출연

지역사회와 ESG 경영 혁신

강원랜드가 협력사들의 ESG 경영을 적극 지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강원랜드와 4일 강원랜드 본사에서 'ESG 우수 중소기업 포상 및 2024년 협력사 지원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강원랜드는 협력사들의 ESG 경영 도입과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

강원랜드는 '2023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통해 ESG 지표 준수율이 80% 이상으로 평가된 우수 협력업체인 강원남부주민, 고한사북남면청년주민, 석광산업, 우리주민, 코주부프레쉬육

개사에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와 함께 100만원씩의 성과공유금을 지급했다.

또한, 강원랜드는 상생협력기금 5000만원을 출연해 협력사의 ESG 경영 도입과 강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동반위는 ESG 지표 개발, 교육, 진단 및 현장 실사 등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동반위 박치형 운영처장은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사와 지역사회 모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나무가든

프리미엄 숙성한우, 숙성한돈 전문점

나무가든 동여의도점 샤넬 이벤트



***현장방문 참여 가능**

- 이벤트 기간 2024. 11. 14. ~ 12. 31. (1.5개월)
- 당첨자 발표 2025. 1. 3.(금) 17시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 응모방법 회원가입 ⇒ 로그인 ⇒ 샤넬이벤트 참여

* 이벤트 참여는 나무가든 현장에서만 가능

- 경품
 - 1등 샤넬핸드백 (1명) 1800만원 상당
 - 2등 샤넬향수 (15명)
 - 3등 나무가든 5만원 식사할인권 (30명)
 - 4등 나무가든 3만원 식사할인권 (50명)
 - 5등 나무가든 생맥주 2잔 (200명)

- 기타
 - 식사할인권은 고기손님에 한해 적용 (식사손님 불가)
 - 생맥주는 식사손님/고기손님 모두 사용 가능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사용기간 : 2025. 2. 28까지
 - 생맥주 1인 2잔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사용은 테이블당 1회에 한함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중복사용 가능

- 문의 02-785-8883
-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24, 호성빌딩 2층
여의도역 5번 출구, 셋강역 1·2번 출구, KBS 별관 옆

지난해 출생아 기대수명 '83.5년'

통계청 '지난해 생명표'

기대수명 남자 80.6년, 여자 86.4년
17개 시도별선 1위 서울, 17위 충북
암, 심장, 폐렴으로 사망확률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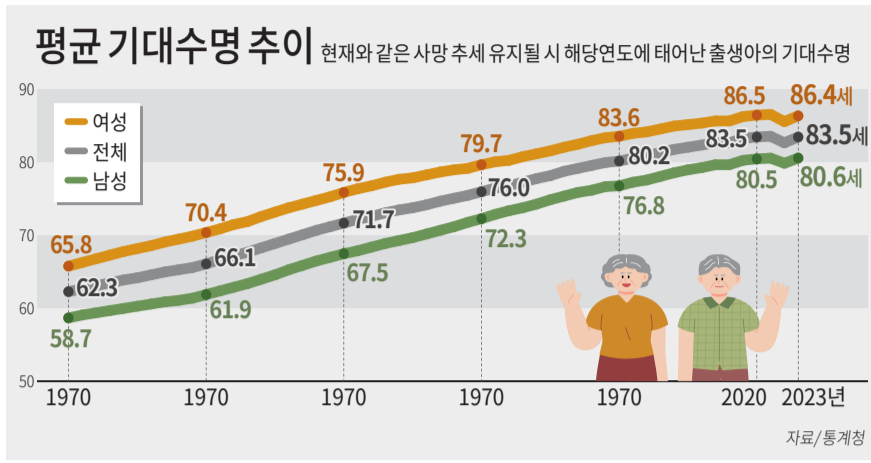
지난해 출생한 남자와 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신생아들 평균에 비해 각각 2.2년, 2.8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됐다. 2023년 태어난 아이 기준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2022년보다 0.8년 늘어났다. 10년 전과 비교해서는 2.1년 늘었다.

통계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생명표는 현재와 같은 사망 추세가 계속 유지될 시 특정 나이의 사람이 몇 년 더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표를 일컫는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5년이었다. 남자는 80.6년, 여자는 86.4년으로 남자는 전년대비 0.7년, 여자는 0.8년 증가했다. OECD 평균은 남자 78.4세, 여자 83.6세 수준이다.

남녀 격차는 지난 1985년(8.6년) 정점에 달한 뒤 좁혀지는 추세다. 남녀 기대수명 격차(5.8년)는 OECD 평균(5.3년)보다 여전히 컸다.

남자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스위스(82.3년)로 우리나라보다 1.7년 길고, 여자의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일본(87.1년)으로 우리나라보다 0.7년 길었



다. 우리나라 여자의 기대수명은 일본에 이어 OECD 2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별로, 기대수명은 서울(85.0년)과 경기(83.9년) 순으로 높고 충북(82.4년)과 전남(82.5년) 순으로 낮았다.

성별로, 남자는 서울(82.0년), 세종(81.3년) 순으로 길고 전남(79.3년), 충북(79.4년) 순으로 짧았다. 여자는 서울(88.0년), 제주(87.7년) 순으로 길고 충북(85.4년), 울산(85.5년) 순으로 짧았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암, 심장질환, 폐렴 등 3대 사인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43.7%, 여자 35.4%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과 비교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3대 사인인 암, 심장 질환, 폐렴에서 사망할 확률이 증가했다"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폐렴에서 사망할 확률이 가

장 많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남자 23.8%, 여자 15.0%로 3대 사인 중 가장 높았다.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8.9%, 여자 10.9%, 폐렴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11.0%, 여자 9.5%다.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6.3%, 여자 7.3%로 집계됐다.

향후 남자는 암, 폐렴, 심장 질환 순으로, 여자는 암, 심장 질환, 폐렴 순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았다.

폐렴, 심장 질환, 코로나19, 알츠하이머병 등은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각 사망원인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자살, 운수 사고 등은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해당 사망원인으로 사망할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고용부, '유연근무' 국민 의견 듣는다

온라인 유연근무 정책제안 게시판 마련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유연근무 정책 제안 게시판을 마련해 노사,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모색한다고 4일 밝혔다.

시차출퇴근,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로제, 근로시간 단축제,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확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국민 누구나 활용사례, 건의·불편사항 등을 바탕으로 제안할 수 있다.

올해 통계조사 결과, 임금 근로자의 반 이상(55.8%)이 유연근무를 활용 중이거나, 또는 활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됐다. 유효한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제안된 내용을 정책 검토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들어온 제안에 대해 추첨을 통해 50명에 커피쿠폰도 제공할 예정이다.

편도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에 생산성을, 근로자에게 일·생활·균형을, 사회적으로는 저출생 해소를 위한 유연근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장 담그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韓 23번째 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가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 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했다. 장 담그기는 한국 23번째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 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장 담그기 문화를 신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장 담그기는 주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성별, 연령, 사회 집단의 가족 구성원이 수행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관련 지식과 기술은 주로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딸과 며느리에게 가족 내에서 전승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명인이나 지역사회 단체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은 특정 가족의 정체성을 반영하며, 가족 구성원 간 연대를 촉진한다"며 "발효와 숙성 성공을 위해 부적을 사용하거나 의식을 거행하는 등 관련 문화 관행도 탄생시켰다"고 평가했다. 한국인들이 장의 건강 효능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기순도 명인의 모습 /한식진흥원

이번 등재로 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대두 생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위원회 측 전망이다. 또 콩 생산량 증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 담그기는 콩을 주재료로 메주를 만든 뒤, 이를 발효시켜 된장과 간장 등을 만드는 전통적인 과정을 가리킨다. 콩 재배부터 메주 만들기, 장 담그기, 장 가르기, 숙성과 발효 등 과정을 거치는 전통 제조법은 중국 및 일본과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단순한 음식 준비를 넘어 한국의 전통 식문화와 생활 방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환경부, '염인정제도' 명확성 개선

물환경보전법·하수도법 개정안 오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이차전지 폐수 처리서 혼선 해결

정부는 이차전지 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염 폐수 처리수의 해양 방류 시 적용됐던 염인정제도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했다.

환경부는 오는 5일부터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기간 해양생물독성검사, 염의 범위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우선, 염인정을 받을 때 사용되는 독성 검사 해양생물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에는 염인정 시 보통 발광박테리아 1종에 대해 독성 검사를 실시했으나, 이차전지 염폐수의 주성분인 황산염에 민감한 윤충류를 추가해 해양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염의 정의를 바다물의 주성분 6종인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황산염, 염소 이온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 전반적으로 불분명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염인정 신청 요건도 확대된다. 그동안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 시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시운전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완료한 후, 시범적으로 가동하는 기간(30~70일) 동안 이뤄지며, 시운전이 종료된 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초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도 순차적으로 연내에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또한,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 염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염인정 안내서'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를 연내에 마련해,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해양에 방류하는 처리수가 해양생물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 한 것"이라면서 "환경영향과 기업 이행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지속가능한 토양 위해 전 세계 노력 촉구"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세계 토양의 날'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5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세계 토양의 날'은 토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양 보전을 위한 전 세계의 노

력을 촉구하기 위해 2013년 유엔 제68차 정기총회에서 12월 5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정부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기념행사는 '지속가능한 토양을 위한 측정, 관찰, 관리'를 주제로 개최된다. /세종=김대환 기자

근로복지공, 아태지역 사회보장 우수사례 선정

공모전서 총 7개 선정

근로복지공단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가 개최하는 '아태지역 사회보장 우수사례(ISSA Good Practice Awards)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2건을 비롯해 총 7개 사례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공모는 ISSA가 3년마다 개최하는 행사로, 아태지역의 60여 개 회원 기관이 제출한 산재보험 등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공모는 혁신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전 세계 사회보장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총 7개의 사례를 제출했으며, 이 중 로봇기술(RPA)을 활용한 산재보상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와 직업 복귀 통합지원시스템 등 2개 사례가 최우수상(Certificates of Merit with Special Mention)을 수상했다.

해당 기술을 통해 단순 반복적인 산재보상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고객 편의를 향상시킨 점, 그리고 산재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며 메타버스 기반 취업지원 전문 상담 등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효과적으로 지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시대 업무방식의 혁신사례 등 나머지 5개 사례 모두가 우수상(Certificates of Merit)에 선정돼 공단이 수행하는 사회보장서비스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일하는 삶의 보호와 행복에 기여하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 사회보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달러 강세’ 원재료 수입 부담... 연말 대목 사라질까 ‘불안’

식품·외식업, 비상계엄 후폭풍

뉴욕증시서 쿠팡 장중 9.8% 급락
포스코홀딩스·한전 등도 장중 약세
라면 등 K푸드 수출, 타격 없지만
소비심리 위축, 내수·외식업계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했다가 6시간만에 실패로 돌아간 비상계엄 여파가 식품업계에 파고치고 있다. 소비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까지 덮치면서 환율이 크게 치솟았고, 외신들이 일제히 주목하면서 K푸드와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농식품 수출액은 90억5000만달러(약 12조6935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라면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30.0% 증가한 11억3840만달러(약 1조5967억원), 제과 수출액은 16.5%



16일 부산 기장군 신세계사이먼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사우스프라자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열린 가운데 식당가에서도 트리가 불을 밝혀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은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하고, 더불어 동화 같은 볼거리, 팝업스토어,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뉴시스

늘어난 7억570만달러(9898억원)로 집계됐다.

식품업계는 비상계엄 사태가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외신 보도가 지속될 경우 한국에 대한 국제적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상계엄 소식은 해외 증시에 즉각 반영됐다. 4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쿠팡은 미 동부시간 오후 12시 40분 기준 전장보다 4.4% 하락한 23.75달러에 거래됐다. 쿠팡은

이날 계엄 선포 소식에 뉴욕증시에서 장중 9.8%까지 낙폭을 키웠다가 계엄이 해제되면서 낙폭을 줄였다. 포스코홀딩스(-4.3%), 한국전력(-2.9%), KB금융(-2.7%) 등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형태로 뉴욕증시에서 거래되는 다른 기업들도 장중 약세를 보였다.

환율도 치솟았다. 전날 원달러 환율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1442원까지 급등했다. 달러가 초강세를 나타냈던 2022년 10월26일 이후 약 2년 1개월 만이다.

상황이 종료되면서 상승폭은 줄었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재료 수입 비용이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밀, 대두, 옥수수, 밀가루를 많이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환율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재료 수입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라면을 비롯한 K푸드 수출에 당장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

지만,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 또 이번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수 판매와 외식업계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식업계는 상황이 심각하다. 연말 성수기를 맞아 기대를 품고 있던 시점에 이번 사태로 국내 정세가 불안정하고 외출까지 자제하게 되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6년 ‘최순실 게이트’ 당시 유통업계는 최악의 불황을 경험한 바 있다. 당시 연말 대목을 앞둔 상황에서 호텔예약은 급감했고, 외식업체와 백화점 매출까지 하락하는 등 연말 특수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불경기로 장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연말 분위기를 내기는 힘들 것 같다”며 “어제 하루였지만, 11시가 넘어가니 매장 손님은 물론, 배달 건수도 확연히 줄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켈리, 페스티버와 컬래버... 굿즈 선보여

스마트폰 케이스 6종 등 출시 내일 오후 12시 사전예약 가능

더블 임팩트 라거 ‘켈리’가 재미있는 소비를 추구하는 펀슈머(Fun+Consumer) 고객 공략에 나선다.

하이트진로는 다가오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해 유틸리티 전문 기업 슈피겐 코리아의 신규 브랜드인 펠트 플랫폼 ‘페스티버(Festiver)’와 협업을 통해 ‘켈리x페스티버 굿즈’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하이트진로와 슈피겐의 만남은 진로 이즈백과의 두 번의 협업에 이은 세 번째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진로 브랜드의 메인 컬러와 두꺼비 캐릭터를 활



켈리x페스티버 컬래버레이션 굿즈. /하이트진로

용한 다양한 굿즈 협업으로 소비자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이번 컬래버레이션은 2030 소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즐거운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켈리 주 타겟층인 MZ 세대가 주로 소비하는 아

이템에 차별화된 디자인을 더해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켈리의 감각적인 앰버 컬러와 아트웍이 담긴 스마트폰 케이스 6종, 노트북 파우치 등이 출시된다. 6일 오후 12시부터 페스티버 공식 스토어와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18일부터는 페스티버 공식 채널 포함 무신사, 티다문구점, 카카오표물하기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채널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컬래버레이션 기념으로 페스티버 온라인 채널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중에 있으며, 페스티버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참여시 추첨을 통해 켈리 굿즈를 선물로 받아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SSG닷컴, 새벽배송 서비스 충전권 확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포함

SSG닷컴이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충청권으로 새벽배송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평택시를 시작으로 이달 9일부터 동탄을 포함한 화성시, 하남시 등 경기 남부권에서도 새벽배송 이용이 가능해진다.

SSG닷컴에 따르면, 해당 지역 고객은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최대 3일 뒤까지 원하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

으며 일요일에도 배송이 가능하다. 상품은 재활용 가능한 종이 상자에 담아 배송되며 냉장·냉동 상품은 보냉재와 별도의 파우치로 포장된다.

이번 권역 확대는 신세계그룹과 CJ그룹이 체결한 사업 제휴 합의(MOU)의 성과로, CJ대한통운의 물류 인프라와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SSG닷컴 측 설명이다. 새벽배송 상품은 CJ대한통운을 통해 배송된다.

SSG닷컴은 다음 달 4일까지 새벽배송 신규 권역 고객을 대상으로 쿠폰 행사도 진행한다. /안재선 기자

롯데온 선물하기 1위 상품 ‘모바일 상품권’

전체 판매비중의 약 40% 차지

롯데쇼핑 전자상거래 플랫폼 롯데온이 지난달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고객이 가장 많이 찾은 1위 상품군을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롯데온에 따르면, 롯데 모바일 상품권과 롯데시네마 영화관람권의 수요가 가장 높았다. 특히 롯데 모바일 상품권은 선물하기 전체 판매 비중의 약 40%를 차지했으며, 10만원권과 5만원권이 최고 인기 품목으로 집계됐다.

선물하기 인기 상품군 2위는 명품 화장품이다. 11월에는 핸드크림, 파우더, 스킨케어 등의 제품이 가장 많이 구매됐으며, 12월에는 각 브랜드에서 선보인 연말 한정판 제품이 높은 수요를 기록했다.

3위는 패션 잡화 상품군이 차지했다. 집업 스웨터와 방한내의를 비롯해



롯데온 퍼펙트 기프트 행사 관련 이미지. /롯데온

언더웨어, ‘갈비탕 실속세트’ 등 이색 식품 선물도 상위 판매 목록에 올랐다.

롯데온은 이달 8일까지 ‘퍼펙트 기프트’ 행사를 진행한다. 테마, 타겟 고객층, 제품 특징 등을 바탕으로 한 추천 선물을 10~15% 혜택가에 만나볼 수 있으며, 7%에서 10%까지 카드할인도 추가로 제공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홈플러스 11일까지 ‘AI 메가핫딜’

홈플러스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캠페인인 ‘AI 메가핫딜’ 2주차 상품을 공개하며 이달 11일까지 초특가와 반값 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홈플러스의 할인 행사 브랜드 ‘홈플러스 대란’은 다년간 축적된 쇼핑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들에게 이번 주 필요한 상품을 ‘AI 메가핫딜’로 선보인다.

먼저,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당당 옛날통닭’ 한 마리를 4990원에 제공한다. 대형마트 점포당 평균 400~500마리가 준비됐으며, 1인당 최대 2마리까지 구매할 수 있다.

신한, 삼성 등 행사카드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15브릭스 사인머스켓’과 ‘새벽·킹스베리·금실·장희팔기’ 상품을 각각 9990원, 5000원에 제공한다. 5일부터 8일까지는 ‘특란’ 30구 한 판을 6990원에 판매한다. /안재선 기자



던킨 원더스 강남 외관. /SPC던킨

강남에 ‘던킨 원더스’ 두번째 매장 오픈

SPC던킨, 크림휠레 도넛 등 판매

던킨이 신규 콘셉트 ‘원더스(Wonders)’ 확장에 나선다.

SPC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의 ‘던킨 라이브 강남’ 매장이 신규 콘셉트 ‘원더스(Wonders)’를 적용한 ‘던킨 원더스 강남’으로 재탄생했다.

‘던킨 원더스 강남’은 원더스 콘셉트를 적용한 첫 매장인 ‘던킨 원더스 청담’에 이은 두 번째 원더스 매장이다.

이번 리뉴얼에 따라 ‘던킨 원더스 강남’에서는 기존 스테디셀러인 ‘크림휠레 도넛’ ‘에그베네티트 도넛’ 등 매

장에서 직제조한 수제 스타일 도넛과 함께 ‘원더넛’ ‘3레이어즈’ ‘퍼프’ 등 3개 카테고리의 ‘원더스 도넛’을 만나볼 수 있다.

‘원더넛’은 파운드케이크와 머핀의 식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아메리칸 스타일의 케이크 도넛으로, 목직하면서 촉촉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32겹 크루아상 생지로 만들어 바삭한 페이스트리 식감을 살린 ‘3레이어즈’와 발효기술로 더 쫄깃하고 부드러운 도넛에 필링을 가득 채운 생도넛 스타일의 ‘퍼프’도 오직 원더스 매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다. /신원선 기자

‘新성장동력’ OTC 화장품… K뷰티, 美 소비자 ‘정조준’

(일반의약품)

씨티케이, 美 현지에서 생산기지 마련 이미 FDA 감사 완료하고 인증 갖춰 선진뷰티사이언스, 장항공장 부지 내 180억 규모 OTC 전용 공장 건설 코스메카코리아, 잉글우드랩 인수 제품 안전성·지속가능성 집중



ChatGPT에 의해 생성된 화장품 업계가 사업 강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이미지.

K뷰티가 일반의약품(OTC) 화장품 사업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뷰티 플랫폼 기업 씨티케이(CS)는 미국 현지에서 화장품 및 일반의약품(OTC) 생산 기지를 마련했다.

씨티케이는 지난 2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화장품 및 일반의약품 제조법인인 인수를 위해 미국 자회사 씨티케이 유에스에이 홀딩스에 대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증자 규모는 총 약 280억원 수준이다.

씨티케이는 미국 제조 공장 인수를

통해 북미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K뷰티의 성장세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 화장품 시장은 한국과는 달리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수가 포함된 색조 화장품 등 ‘기능성 화장품’에 OTC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조업체 등록을 하고 지정된 인증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씨티케이(CS)는 화장품 브랜드사에는 OTC 규제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고, 국내 ODM(제조자개발생산)·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회사에는 OTC 전문 위탁 생산서비스를 제공한다.

씨티케이가 이번에 인수하는 OTC 제조법인인 이미 미국 식품의약국(FDA) 감사를 완료하고 관련 인증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케이(CS)는 오는 2025년 상반기 안으로 해당 시설을 OTC

C 전문 공장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씨티케이(CS)는 고객사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해 관세 부담, 물류비 등을 절감하는 전략도 펼친다. 씨티케이 측은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하면 무역환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제적으로 북미 현지에서 생산 능력을 확보해 캐나다, 호주 등으로 수출 지역을 넓혀 K뷰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장품 원료 제조 전문 기업 선진뷰티사이언스도 OTC 화장품 사업이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뷰티사이언스는 현재 충남 장항에 위치한 장항공장 부지 내에 해당 사업 전용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진뷰티사이언스는 18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고, 오는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후 같은 해 4월 내 미국 FDA에 OTC 제조사로 등록하고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또 선진뷰티사이언스는 생산 능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자사의 화장품 소재

까지 활용하면 이익률 등 수익성 증진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코스메카코리아도 OTC 화장품 사업으로 실적 성장을 노리고 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일찍이 지난 2018년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잉글우드랩을 인수했다. 잉글우드랩은 OTC 화장품 제조에 특화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 K뷰티의 선커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제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OTC 화장품인 만큼, 제품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에 집중하고 있고, 미국 대형 유통사인 세포라, 알타 뷰티 등의 마케팅 기준까지 준수해 미국 소비자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이 잉글우드랩 측의 설명이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올해 연결 매출 50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연결 매출 4707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대웅바이오 ‘베아셉트’, 세브란스병원 입성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 치료제)

올해 베아셉트 처방액, 314억 전망 현재 연평균 17% 성장률 기록 국내 4대 대형병원서 처방 가능

대웅바이오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 치료제 ‘베아셉트(성분명: 도네페릴 염산염)’가 세브란스병원 약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대웅바이오에 따르면 베아셉트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의 인지능력 개선, 일상생활 수행능력 유지 및 이상행동 증상 개선을 위해 경증부터 중증 환자에게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작은 제형, 경제적 약가, 정제 5mg 분할선 및 액제 제형 차별화 등 환자들의 수요를 충족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 대웅바이오 측의 설명이다. ‘베아셉트정 5mg’ 정제는 분할선이

설계돼 2.5mg의 저함량 복용이 필요한 초기 치매환자와 부작용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합하다. 정확한 분할 조제를 통한 안전한 복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베아셉트액’은 연하곤란 및 노인 환자 등 정제 경구 투여가 어려운 환자의 복용순응도 개선을 위해 개발된 제품이다.

실제로 의약품 통계정보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출시된 베아셉트는 가파른 처방세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베아셉트 처방액은 274억원으로 지난 2020년 168억원 대비 63% 증가했다. 현재 연평균 1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처방액은 3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통과로 베아셉트는 삼성서울병

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을 비롯해 세브란스병원까지 국내 4대 대형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분당서울대병원과 경희의료원, 강북삼성병원, 가천대길병원 등 28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총 326개의 종합병원 및 주요 병원에서도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대웅바이오는 베아셉트를 비롯해 뇌 기능개선제 글리아타민(성분명: 폴린 알포세레이트) 등을 통해 국내 중추신경계(CNS)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굳히고 있다. 글리아타민의 경우, 국내 폴린알포세레이트 치료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글리아타민 처방 실적은 지난 2023년 1545억원으로 동일 성분 제품 중 처방 규모가 가장 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호텔신라, 미래 지속성장 위한 임원인사 실시

김준환 부사장 등 승진



김준환 신임 부사장 안재호 신임 상무 윤재필 신임 상무

호텔신라가 2025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미래 지속 성장과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해 탁월한 성과와 핵심역량을 보유한 차세대 리더들을 승진자로 선정했다는 게 호텔 신라 측의 설명이다.

가장 먼저, 이번 인사를 통해 김준환 전 상무가 호텔신라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김준환 신임 부사장은 1970년생으로 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MBA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지난 2014년 삼성전자에서 호텔신라로 전입한 이후, 2015년 면세(TR) 부문 지원팀 재무그룹장을 맡아 조직을 이끌었다. 이어 2019년

정기 임원 인사에서 상무로 승진하며 경영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 외에도 안재호, 윤재필 등 총 2명이 신임 상무에 이름을 올렸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하여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롯데호텔앤리조트 ‘보석의 예술’ 전시 연계 숙박상품 선보

롯데호텔앤리조트가 세계적인 보석 수집가 ‘카즈미 아리카와’의 보석 전시와 연계한 숙박 상품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롯데호텔앤리조트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롯데뮤지엄에서 열리는 ‘보석의 예술’ 전시에서는 카즈미 아리카와가 지난 40여 년 동안 모아온 진귀한 보석과 보석 장식품 총 20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이 전시와 연계한 숙박 상품 ‘보석의 예술 워드 롯데호텔앤리조트’를 시그니엘 서울, 롯데호텔 서울 등 국내 8개 체인호텔에서 판매한다. /안재선 기자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中에 NDA 제출

(신약허가신청)

中, 약 1000만명의 뇌전증 환자

SK바이오팜은 글로벌 투자사 6D 캐피탈과 설립한 합작법인 ‘이그니스 테라퓨틱스’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에 대한 신약허가신청(NDA)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세노바메이트는 현재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실제로 세노바메이트(미국 판매명: 엑스코프리)의 미국 직접판매 매출은 올해 2분기 10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7.7% 커져 1133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가파른 성장

세를 보이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이번 신약허가를 통해 세노바메이트의 글로벌 입지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중국은 약 1000만명의 뇌전증 환자가 있는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로, 뇌전증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옵션에 대한 높은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 SK바이오팜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SK바이오팜은 마일스톤 기술료도 수령할 예정이다. SK바이오팜에 따르면 이번 마일스톤 기술료는 1500만달러(약 210억원) 수준이다. /이청하 기자

종근당건강, 다이소 뷰티브랜드 ‘클리덤’ 공개

저분자 콜라겐 기반 스킨케어 제품

종근당건강이 오는 5일부터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피부 고민 맞춤형 브랜드 ‘클리덤’을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종근당건강은 클리덤을 통해 ‘저분자 콜라겐’ 기반의 스킨케어 제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클리덤은 피부 탄력, 보습, 주름 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종근당건강 측의 설명이다.

종근당건강에 따르면, 브랜드 대표 제품인 ‘실타레 크림’은 저분자 콜라겐을 비롯해 히알루론산, 달팽이점액여과물 등을 함유하고 있다.

실타레처럼 쪽쪽 늘어나는 제형이 제품 유효 성분과 피부의 밀착력을 높여 주는 것이 특징이다.

실타레 크림과 함께 사용 가능한 ‘클

리덤 저분자 콜라겐 미스트 앰플’은 콜라겐 앰플종과 오일종이 8대 2 비율을 이루고 있는 제품이다. 수분 공급과 함께 유수분 균형을 관리하는 기능을 갖췄다.

이와 함께 종근당건강은 기존 다이소 뷰티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제품도 출시한다. ‘클리덤 저분자 콜라겐 아이 마사지 앰플’은 360도 회전하는 눈가 전용 마사지를 탑재한 제품이다.

종근당건강은 입술 메이크업 제품으로 ‘클리덤 저분자 콜라겐 랩스립’도 내놓는다. 총 두 가지 색상으로 구성돼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종근당건강은 ‘클리덤’을 다이소 전용 브랜드로 기획한 만큼, 고기능성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 가성비 중심의 소비 유행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 인터파크 바로가기

아무리 곱씹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마원동 오 브라더스



2022.12.01 ~ OPENRUN | 대학로 인터파크 유니플렉스 3관

원작 김호연 소설 '망원동 브라더스'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 홍현우 | 각색 홍루현 | 음악감독 김은지 | 무대디자인 이창원 |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주)빛나 | 포스터 (주)그래피스타
출연진 김찰리 이동구 임현준 신정만 맹상열 김현 오치운 강대수 김록현 김민국 김재언 양현석 박창희 한병수 김도연 이세미 이승우

제작 극단자우 | 기획 J 제이엘컴퍼니 B(주)브라더후드 |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waterfall 워터폴스토리 | 예매처 인터파크 | 문의 02-332-4902

고려아연, 에너지 취약계층 지킨다... 연탄 1.4만장 전달



KT그룹 희망나눔재단, 김장 담그기 봉사 실시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은 '제2회 희망나눔의날'을 맞아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김장 담그기 봉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김장담그기 행사에는 재단 임직원을 포함해 10번째 KT희망나눔인상 수상자 이영택 원장 등 약 50여명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약 1.4톤의 김치를 직접 담가 양천구 복지기관과 새터민 센터, 저소득 가정 등에 전달했다. /KT



정준호·포인투유, 중기사랑나눔재단 3000만원 기부

배우 정준호와 소상공인 쇼핑 플랫폼 포인투유(P2U)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3000만원을 기부했다.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서 (왼쪽부터)최병호 포인투유 대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배우 정준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현대엘리베이터, 지역연계교육과정 첫 수료식

현대엘리베이터가 충주공업고등학교와 진행한 지역연계교육과정의 첫 수료식을 가졌다. 4일 충주 스마트캠퍼스에서 열린 수료식에는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 등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상장 수여식, 활동 영상 시청, 비전트리 만들기 등이 진행됐다. /현대엘리베이터



소진공,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우수사례 발굴·시상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난 3일 대전본부에서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소진공은 이날 민·관협업교육 우수 교육생 등 36건을 발굴, 시상했다. 박성호 이사장(앞줄 왼쪽 여섯번째)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인하대 시너지팀, '공학페스티벌' 산업부 장관상

인하대학교는 전기공학과 시너지팀이 '2024 공학페스티벌'에 참여해 최우수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하연 학생을 대표로 한 시너지팀은 '통학길 택시 카풀 플랫폼, 모두의 택시'를 주제로 한 시작품을 제출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인하대

대한적십자사와 연탄나눔 봉사 겨울철 물품 후원금 1550만원 전달

고려아연 임직원들이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와 함께 한파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과 함께하는 2024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 3, 4동 일대에서 진행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고려아연 및 계열사(서린정보기술) 임직원, 적십자봉사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적십자사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동행을 올해로 16번째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이날 고려아연은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앞서 동절기 주거취약계층 이웃들이 겨울을 나는 데 필요한 물품 마련을 위해 1550만원 상당을 적십자사에 후원하는 내용의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고려아연의 후원으로 서울 노원구 등 취약계층 70세대에 연탄 200장씩 총 1만4000장, 백미 10kg씩 총 700kg이 전달됐다. 지원대상은 행정기관 추천 및 적십자봉사원이 지역사회에서 발굴한 주거취약 계층이다. 이어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고려아연 및 계열사(서린정보기술) 임직원과 적십자봉사원들이 동절기 한파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을 나르고 있다 /고려아연

이날 고려아연은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앞서 동절기 주거취약계층 이웃들이 겨울을 나는 데 필요한 물품 마련을 위해 1550만원 상당을 적십자사에 후원하는 내용의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고려아연의 후원으로 서울 노원구 등 취약계층 70세대에 연탄 200장씩 총 1만4000장, 백미 10kg씩 총 700kg이 전달됐다. 지원대상은 행정기관 추천 및 적십자봉사원이 지역사회에서 발굴한 주거취약 계층이다. 이어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노원구 등 취약계층 70세대에 연탄 200장씩 총 1만4000장, 백미 10kg씩 총 700kg이 전달됐다. 지원대상은 행정기관 추천 및 적십자봉사원이 지역사회에서 발굴한 주거취약 계층이다. 이어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제로슈거 소주 '새로', 대한민국 광고대상 금상

롯데칠성음료 소셜커뮤니케이션 부문 수상

롯데칠성음료는 제로슈거 소주 '새로'가 전날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소셜커뮤니케이션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31회를 맞는 '대한민국 광고대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고 시상식 중 하나로, 롯데칠성음료의 '새로'는 SNS 플랫폼을 기반한 새로운 마케팅 시도와 활발한 소비자 소통의 결과로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롯데칠성음료는 2022년 9월 새로 출시와 함께 '새로구미'(새로+구미호)를 브랜드 엠베서더로 정하고 전통과 현대적 감성을 넘나드는 브랜드 매력을 앞세워 제로슈거 소주 '새로'만의 고유 팬 층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새로'는 대한민국 광고대상뿐 아니라 지난 11월에 열린 '2024 유튜브



윤중혁 롯데칠성음료 주류 마케팅 본부장(왼쪽 세번째)과 김정두 콘텐츠 마케팅 팀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웍스' 시상식에서 유튜브를 활용한 효과적인 광고 캠페인 전개로 '베스트 브랜드'와 '베스트 브랜드의 스피리언스' 각 부문의 파이널리스트를 수상했다. 또한 새로구미만의 독특한 세계관과 한국적 문화 요소를 담은 다양한 창작물은 지난 10월 아시아 3대 디자인 시상식 중 하나인 'K디자인 어워즈'의 전문 심사위원 33인으로 부터 시각 디자인 부문 '위너'에 선정된 바 있다.

한편, 2022년 9월 첫 선을 보인 '새로'는 출시 22개월만인 지난 7월 누적 판매량 4억 병을 돌파하며 국내 소주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제로슈거 소주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았다. 최근 공개한 애니메이션 광고 '새로구미: 산 257' 두 편은 공개 한 달 만에 유튜브 합산 조회수 1000만회를(현재 기준 1500만회) 넘어서며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 ◆**삼성물산** (상사부문) ◇부사장 △조희섭 △최석성 ◇상무 △김형국 △배정환 △이일한 △정용수 △조영진 <건설부문> ◇부사장 △김성준 △김영래 △장병윤 △조혜정 ◇상무 △강신혁 △김주영 △노정수 △류길상 △윤동훈 △윤준영 △임진석 △정환우 △형시원 <패션> ◇상무 △송태근 <리조트부문> ◇상무 △정태진
- ◆**삼성중공업** ◇부사장 △임종진 ◇상무 △민준호 △박용구 △허희영 ◇마스터(Master) △방창선
- ◆**삼성재단** ◇상무 승진 △최인 △이정진
- ◆**에스원** ◇부사장 승진 △강항식 △이동성 △이민정 ◇상무 승진 △강창우 △김현국 △신재형 △오인선
- ◆**제일기획** ◇부사장 승진 △기민수 ◇상무 승진 △김우성 △박대훈 △인

고은

-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상무 △정승일 ◇축산경제 상무 △공형식 △최강필
- ◆**농협중앙회** ◇교육지원 상무 △이광수 △조은주 ◇상호금융 상무 △김기관 △정재현
- ◆**NH농협금융그룹** (농협금융지주) ◇부사장 △황종연(전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장) <농협생명> ◇부사장 △김기동(전 농협생명 경영지원부장) △임도곤(전 농협중앙회 경북본부장) △조근수(전 농협중앙회 경남본부장) <농협손해보험> ◇부사장 △김영일(전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김철희(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기획부장) △서윤종(전 농협손해보험 일반보험부장)
- ◆**세아그룹** (승진) ◇부사장 △세아항공방산소재 성장모 ◇상무 △세아제강 최영준 △세아베스틸 김동혁 △세아특수강 서태복 △세아특수강 이종탁 ◇이

사 △세아제강 박춘섭 △세아베스틸지주 신원철 △세아베스틸지주 전남철 △세아베스틸 김영환 △세아창원특수강 이영생 △세아창원특수강 김대연 △세아씨엠 허성화 <선임> △대표이사 세아씨엠 조진호 △대표이사 동아스틸 최영준

부음

- ▲송세근씨 별세, 김재욱씨 남편상, 송희주(하나증권 수원금융센터장)·완희(광주세관 주무관)씨 부친상 = 4일 오전 4시,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102호, 발인 6일. 062-951-1004
- ▲민덕주씨 별세, 송용희씨 남편상, 민지애(방송작가)·민지영씨 부친상, 정창희·구정욱씨 장인상 = 3일, 가천대 길병원 장례식장 102호실, 발인 6일 오전 9시 3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02-460-3444

코웨이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

물빛소리 합창단, 지역초교 공연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이 지역사회 시민을 위한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4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의 재능기부 활동 일환으로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사회 어린이 및 시민들에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돕기 위해 기획했다.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은 전날 서울 중랑구 신현초등학교를 찾아 재학생 및 교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행사에선 송문경 합창단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우러지기 위한 인식 전환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물빛소리 합창단은 특강 전후로 동요와 캐롤 모음곡으로 구성된 공연을 선보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승호 기자 bada@

서울사이버대 20일 미산스님 특강

심리학과 신설 기념 강의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학과가 신설 기념 릴레이 특강의 일환으로 오는 2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상과학연구소장 미산 스님을 초청해 '마음챙김과 명상과학'의 주제로 명사 특강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서울사이버대 심리학과 신·편입 지원자를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사전 신청한 이들을 대상으로 줌(ZOOM)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미산 스님은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 소장, 하트스마일명상연구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며 옥스퍼드대학교 대학원 철학 박사, 2000~2001 하버드대학교 세계종교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을 역임했다. /이현진 기자 ihj@

비상계엄이 '세 시간 천하'로 끝난 이유



윤 위 중 의
잠시 쉼표

“에이, 설마... 가짜뉴스 아냐”로 시작했다가 “에휴, 나라 꼴이... 애꿎은 군인들만 불쌍하다” “나라 망신살이 뻘뻘했다”로 끝난 3일 밤의 ‘비상계엄 소동’은 사실상 세 시간만에 끝이 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여 만에 이를 해제했지만, 이미 그 전인 4일 자정 무렵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가 넘는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긴급 소집돼 전원 찬성으로 계엄 무효를 선언했기 때문에 삼일 천하도 아니고 세 시간 천하가 돼 버렸다.

은 국민과 전 세계를 경악케 만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 선언이 사실상 ‘해프닝’으로 막을 내린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명분’이 부족했다는 게 가장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24분께 긴급 국민담화를 통해 정부관료 탄핵, 정부 예산안 삭감 등을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 국회의 정쟁이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하

면서 국회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과렵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종북세력, 안보위협’이라는 등식은 쉽게 수긍할 수 없다. 국회 예산안은 매년 여야가 갈등을 겪어왔던 문제였고, 국무위원이나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여야의 정치 이슈다.

더군다나, 야당이 삭감한 예산은 당초 정부예산안 677.4조원 규모에서 4.1조원 수준이었다. 전체 예산의 0.6%다. 이 4.1조원에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비상계엄의 사유로 든 건 너무 나간 것이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동조세력도 없었다. 심지어 여당의 수장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마저 비상계엄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을 정도다. 군과 경찰은 비상계엄사태에 어쩔 수 없이 동원되는 자원이지만, 이들도 진정 국가가 비상사태이고 대통령의 명을 마음으로 따라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예전과 확 달라진 시민의식도 비상계엄을 무력화시킨 커다란 동력이다. 지금은 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이 아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당시 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린 경험을 한 세대이고, MZ세대들은 소통 없이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에 따를 세대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기술(IT)과 미디어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예전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대가 출동해 국회와 신문·방송사를 폐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수만 군데에서 중계되는 시대다. 국내 포털을 장악하더라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유튜브나 다른 SNS 등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비상계엄 선언이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후폭풍은 그냥 넘길 해프닝 수준이 아니다. 이미 국력은 땅에 떨어졌고, 그동안 힘들게 국민과 기업들이 쌓아올린 ‘대한민국’이란 브랜드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상식에서 벗어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상계엄 선언에 대해 관련자들은 반드시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치부장 yhj@metroseoul.co.kr

서울시장의 자리 지키고, 대통령이 되는 길



김 현 정
(정책사회부)

가끔 사람의 운명은 한순간에 바뀐다. 정치인도 마찬가지. ‘무릎팍도사’에 나와 빵 떠서 대통령 후보 자리까지 오른 안철수의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으로 대한민국의 수장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 주인공. 3일 오후 10시27분경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로부터 약 2시간 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에 반대한다”며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이 말이 진심이었다면, SNS에 게시

물을 올리는 것에 그쳐선 안 됐다. 만약 오 시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면 안 의원이나 윤 대통령처럼 그의 운명이 단번에 바뀌었을 수 있다. 폐북에 몇 마디를 남기는 대신, 행동으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 보여줬다면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오 시장은 제 코가 석자다. 계엄령이 선포된 날도 정신없이 바빴다. 지난 3일 오전 오 시장은 인도-말레이시아 출장을 돌연 취소했다. 지하철 파업 대응을 이유로 들었지만, 명태균 리스크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난무했다. 결국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등을 고소하고 출장은 다시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교통공사 노사 간 협상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하나 이 출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다시금 없던 일이 됐다. 결과적으로 오 시장은 지난 약 15시간 동안 해외 출장을 ‘간다→안간다→간다→안간다→안간다’고 계속 말을 바꾸며 시정 운영에 큰 혼란을 줬다.

3일 개최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은 고소 고발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서울시장으로서 이런 송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런 곳에 정신적인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빼앗기는 것이 시민 여러분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돼 극도로 자제해왔다”고 했다.

명태균 게이트에 휘말린 게 얼마나 민폐를 끼치는 일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음에도,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기는 커녕 자신의 송사로 눈코 뜰 새 없는 그는 오늘도 시장의 자리를 지키고, 대통령이 되는 길과 멀어져만 가고 있다. /hjkt@

오늘의 운세 12월 5일 (음 11월 5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고달픈 날을 위해 장미를 선물. 48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누가 알겠는가. 60년생 친구와의 대화 중 해결책이 떠오른다. 72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행운의 날이다. 84년생 떠나기도 머무르기도 힘들다.
- 소** 37년생 운이 상승하는 날이니 거래가 순탄. 49년생 지고도 이기는 것이 있으니 양보가 미덕. 61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신중함이 필요. 73년생 오후에 반가운 소식이 온다. 85년생 지출도 주머니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행동.
- 호랑이** 38년생 어깨를 으쓱할 일이 생긴다. 50년생 먼저 용서하면 상대의 마음을 얻는다. 62년생 이별에 대해 흐르는 것을 막아서지 마라. 74년생 삼각관계가 바보 같은 선택이었음을 비로소 깨닫는다. 86년생 지갑이 비었으니 비상금을 활용.
- 토끼** 39년생 나를 위해 웃고 나를 위해 열심히 살자. 51년생 가족도 서로 노력하며 만들어 가는 것. 63년생 몸은 피곤해도 영업이득이 늘어나간다. 75년생 만남에서 지나친 관심은 상대를 지치게 한다. 87년생 욕심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 말** 40년생 사기 운이 있으니 도장 찍는 일은 신중히. 52년생 죽은 나무에 물 주기는 인제 그만. 64년생 횡재수가 있으니 복권이라도 한 장 구입. 76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못하니 기다려라. 88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절로 온다.
- 뱀** 41년생 소소한 적선이 더 큰 보답으로 온다. 53년생 눈에서 멀어진다고 마음도 멀어지는 것은 아니다. 65년생 무리한 지출로 마음이 불탄. 77년생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것은 부모님 마음. 89년생 내 재산에 대해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 양** 42년생 진실이 매번 옳은 것은 아닐 것이다. 54년생 어진 친구를 만나 귀한 정보를 얻는다. 66년생 파란 하늘이 그림고 비벌 언덕이 절실. 78년생 나에겐 자랑이지만 남에겐 눈엣가시이다. 90년생 자랑만 하는 인색한 구두쇠는 3류 인생.
- 닭** 43년생 짐질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라. 55년생 종로에서 뿔맛고 한강에 가서 논 흘길 듯. 67년생 정치나 종교에 관여하지 마라. 79년생 반려견을 키우려면 지출도 많이지니 신중해야 차후 후회가 없다. 91년생 사랑에 지갑이 털린다.
- 원숭이** 44년생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하루가 된다. 56년생 삶의 중심에 항상 자신을 두라. 68년생 일시적 감정으로 사랑을 시작하지 마라. 80년생 불평하지 마라 종이 절이 싫으면 자신이 떠나자. 92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접는 것이.
- 닭** 45년생 나이 드는 것이 서글프다. 57년생 제2의 인생길에 사색하는 사람이 많으니 소문나지 않게 조심. 69년생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와 배려는 큰 힘이 된다. 81년생 인생에 휘말리면 본전 찾기가 힘들다. 93년생 빌려준 돈이나 선물을 받는다.
- 개** 46년생 내 것이 작아 보여도 소중한 것. 58년생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를 위한 날. 70년생 동상 걸린 발을 얼음물에 담그는 격. 82년생 맹자 말대로 사람은 선하기도 순자 말 한대로 악하기도 하다. 94년생 과거의 슬픈 일은 이제 잊어야 한다.
- 돼지** 47년생 주변인과 견해 차이로 손해가 발생하니 내가 양보해야. 59년생 분홍색 손수건이 오늘 행운의 상징. 71년생 공들인 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83년생 길을 나서면 에너지가 따라오니 분발. 95년생 부모님과 의논하고 결혼계획을 세워야.

김상회의四季 떠오르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에 대해 잠시 적어본다. 다시 떠오르는 비트코인...50만 달러까지 갈까. 비트코인은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미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프로그래머가 만들었다. 비트코인의 특징은 총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른 코인은 발행량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희소 가치가 뛰어나다. 투자하고 싶으면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다. 1개에 1억 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사려면 대단한 자금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한 사람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되어 있다. 코인은 꼭 1개 단위로 거래되는 게 아니라 투자금만큼, 즉 조각으로 사고팔 수 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어치만 사고 싶다면 1억 원이 넘는 비트코인의 아주 작은 조각을 사면 된다. 채굴로도 얻을 수 있지만 전문적이고 많은 장비가 필요하므로 일반인이 채굴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비트코인은 인기만큼이나 부작용도 크다. 추적이 어렵고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범죄나 탈세 또는 자금 세탁 같은 불법 행위에 악용되기도 한다. 각국은 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남미의 엘살바도르와 아프리카의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법정화폐로 정식 화폐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 두 나라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삼은 것은 빈곤 수준으로 추락한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안간힘인데 경제 회복이라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다시 세계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진짜로 준비자산으로 삼으면 50만 달러, 한화로 7억 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전 세계의 시선이 가상화폐로 쏠리고 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열과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9	2	1	9	8	6	7
2	1	8	7	2	6	5	9
6	9	6	5	8	7	2	1
8	2	9	6	8	9	7	1
1	8	7	8	6	1	9	2
9	2	9	1	7	2	6	8
7	8	1	2	8	8	9	6
7	8	6	9	1	1	2	9
2	6	1	9	5	8	1	7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열과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7	2	
	2	7		6		8	
9		3			2	1	4
		9	2		1		
	5						3
			5		3	6	
	7	2	4			9	8
	3			2		8	1
4	8						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6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70호		

지역 이모저모

경주, 원전 전문가들 모여 글로벌 협력 미래 열다

경남도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급 필요

경남도는 사천공항 이용 환경 개선 및 국제공항 승급 등 기능 재편에 관한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부터 사천공항 이용 실태, 공항 접근성, 앞으로 국제선 수요 등에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급에 대해 대다수 도민(74.4%)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국제공항 승급이 경남에 긍정적 영향(79.2%)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도민들은 사천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요 개선 사항으로 ▲항공편 운항 횟수 확대(53.5%) ▲국제선 도입(23.6%) ▲주차장 및 교통편 개선(15.6%)과 공항 접근 교통망 개선(9.1.6%)이 시급하다는도민들의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경남=이도식 기자

해남군

먹거리지수 2년 연속 최우수

전남 해남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고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주관한 '2024 지역먹거리 지수' 결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해남군은 2022년 우수지자체에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는 먹거리 정책의 지역 간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높이기 위해 2019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평가는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남군은 먹거리 계획 추진을 위한 지자체장이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착실히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 Dream Dock' 1호점 개소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2일 백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동 해양산업·문화 학습 공간 '해양 Dream Dock' 1호점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해양 Dream Dock'이라는 이름은 선박을 건조하는 공간인 'Dock'에서 착안했다. 세계를 누비는 선박을 만들고 바다로 내보내는 Dock처럼 해양에 대한 꿈을 만드는 장소라는 의미이다. 1호점 설치 장소는 공모를 통해 백양종합사회복지관으로 결정했다.

해양 Dream Dock은 문화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지역아동들을 대상으로, 단순한 생계적 지원을 넘어 지식을 전달하고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지역아동센터 내 해양문화·산업 등 해양 도서 위주의 독서 공간과 해양산업·문화 교육 환경을 조성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NES 2024' 5일까지 진행 '원자력 사업의 세계화' 주제 개최 전시회·수출상담회 등 기회 제공

국내 유일 원전 수출 및 안전 전문 국제전시회인 'NES 2024'가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공동주관으로 '국경 없는 에너지: 원자력 사업의 세계화(Borderless Energy: Globalizing Nuclear Business)'를 주제로 개최된다.

행사는 ▲전시회 ▲수출상담회 ▲컨퍼런스 ▲산업시찰 ▲채용설명회 등으로 나뉘어 펼쳐진다.

전시회는 해외 27개사 등을 포함해 총 75개사, 160개 전시부스 규모로 진행된다. 원전 정비 및 안전, 원전 건설, 원전 발전 기자재, 원전 해체, 원전 기관 등 원자력 전 분야에 걸쳐 대표 기업들이 참가한다.



국내 유일 원전 수출 및 안전 전문 국제전시회인 'NES 2024'가 3일부터 오는 5일까지 3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수출상담회는 체코 CEZ, 폴란드 PEJ, 캐나다 AtkinRealis, 튀르키예 IC Ictas, TUNAS 등 16개국, 30개사 규모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B2B 수출상담회가 진행된다.

글로벌 원자력 전문가들 간 교류를 위한 다양한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된다.

행사 둘째 날인 4일에는 트레비치

시 시장단과 튀르키예 신규원전을 위한 국영기업 TUNAS 사장단 등 국내 원전 수출 희망 국가에서 원자력 안전 및 지역주민 수용성을 주제로 '세계 원전도시서밋(WNCS: World Nuclear Cities Summit)'이 열린다.

5일에는 신항 원자력 시장으로 평가받는 아시아 지역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국제 컨퍼런스인 AN

BP(Asia Nuclear Business Platform)도 동시 개최된다.

행사의 공동주관사인 KNA에서는 세계 각국의 원전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글로벌 원자력 동향, 한미 원자력 협력 라운드 테이블, 세계 SMR 개발 현황, 기후변화와 원전 등 3일간 다양한 주제의 국제 컨퍼런스를 실시한다.

채용설명회는 원자력 기술 수출을 위한 인력양성 세미나와 함께 한전,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지빌리티 등의 인사 담당자들이 참가해 기업별 맞춤형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K-원전의 우수성이 전 세계로 널리 알려져 원전 수출의 교두보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경주시도 SMR 제조, 소부장 산업육성 및 집적화로 미래 원전 수출시장 선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경북)=최지웅 기자 asdadx@metroseoul.co.kr

부산 창투원, 기술 창업미래 위한 첫걸음

다양한 창업자층 위한 맞춤형 지원

부산시는 재단법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하 창투원)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지난 3일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시청 회의실에서 시 행정부시장, 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 부산경제진흥원장,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투원 설립 취지문 채택과 정관을 심의·의결했다.

발기인 총회는 시의회,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투원 설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됐다.

시의회는 기술 창업을 비롯해 새롭게 생겨나는 융합 산업 등 다양한 창



부산시가 3일 오전 시청 7층 회의실에서 부산기술창업투자원(창투원) 발기인 총회를 열고 창투원의 공식적인 출범 소식을 알렸다.

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창투원의 수요자층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고, 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창투원을 창업 사령탑으로 제대로 설립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금융인재 육성 위한 교육 혁신 본격화

부산교육청, 특화 자사고 설립 추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지난 3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부산시, 한국거래소, BNK금융지주와 '부산 금융 인재 육성을 위한 자율형 사립고 설립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금융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중심지 부산이 차세대 금융인재의 산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반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울산, 명촌공영차고지 조성 공사 준공

154억 들여 2만여㎡ 조성

울산시는 4일 오전 10시 북구 명촌동 명촌공영차고지에서 '명촌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김종섭 울산시장 직무대리, 김영곤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나윤호 경동도시가스 사장, 김세호코하이젠 사장 등 관련 기관 및 기업·운송

업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내빈 소개, 사업 경과보고, 색줄 자르기,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된다. 명촌공영차고지는 태화강역 환승센터 조성에 따라 태화강역에 있던 시내버스 회차지를 북구명촌동 433-11번지로 확장 이전한 시설이다.

총사업비 154억원이 투입됐으며 부지 면적 2만 2804㎡, 건축 연면적 2415㎡ 규모로 조성됐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진주, 노인 일자리 참여자 6939명 모집

이달 16일까지 신청 가능

진주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말했다.

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은 280억 원을 투입해 올해보다 395명 늘어난 6939명 규모로 모집되며 이는 진주시 노인인구 10%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지역 사회 환경 개선 봉사, 노노케어 등 노인공익활동사업

▲보육시설 도우미, 우체국 업무 지원 등 노인역량활동사업 ▲참기름 및 누룽지 제조, 실버카페 등 공동체사업 ▲중소기업 등 수요처로 구직자를 연계하는 취업 지원 분야로 나뉘어 모집된다.

신청 기준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지역연금수급자 중 기준 충족 대상자이며 노인역량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공동체사업단 및 취업 지원 분야는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진주(경남)=손병호 기자

뉴스테이브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미국무 "韓 계엄 해제 환영... 평화적 해결 기대" /사진 뉴시스 ▲ 주요 동맹국들, '계엄 선포' 우려 나타내

▲ 데이시바 "韓계엄, 주시... 방한, 정해진 것 없어" ▲ 한미, 핵우산 강화 회의·도상연습 연 기... 계엄 여파인 듯



▲ 中 "서울의 겨울... 韓사회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 ▲ 트럼프, '성비위 의혹' 국방장관 지명자 교체 검토 /사진 뉴시스



환율 강세에
원재료 수입 부담
식품·외식업 '불안'
L1



Life

신성장동력
OTC 화장품
美소비자 정조준
L2



입찰 담합하고, 무단점유 '쉬쉬' 서울 학교수영장 부정사례 적발

서울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발표 5곳에 징계·경고...부정사용 확인 사용허가 매뉴얼 등 운영제도 개선

서울 공립 초·중·고교 일부에서 수영장 무단 점유업체에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사용료를 임의 감면하는 등 부정적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교수영장을 운영하는 공립 초·중·고교 41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11개 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총 5개 학교에 대한 징계와 경고가 이뤄졌고, 부정사용도 다수 확인됐다.

부정적 사용 사례로는 ▲학교수영장 사용허가 계획 미수립 ▲입찰참여자 간 담합 정황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사용료 임의 감면 및 부당한 사용허가기간 연장 ▲사용허가 면적 오류로 인한 사용료 과소 징수 등이 적발됐다.

적발 주요 지적내용을 보면, A학교는 수영장 사용인 선정 시 사용허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입찰 공고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사후에 받았다.

학교수영장 입찰참여자 간 담합 정황도 있었다. B학교는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1순위가 2순위가 입찰을 포기해 3순위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낙찰자의 대표자가 다른 두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했다.

무단점유자 변상금 미부과, 사용료 임의 감면 및 사용허가기간 연장 등의 부적정 사용도 확인됐다. C학교는 학교수영장을 38일간 무단점유한 기존 사용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사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에도 188일간의 사용료를 감면해 주거나, 연장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 만료일을 8개월간 연장했다.

D학교는 사용료 예산편성을 부적정하게 진행하고 과소 징수했다. 이 학교는 2021학년도 회계에서 본예산 사용료 수입 3억9600만원을 편성했으나, 사용료 미납 등으로 세입 경정이 발생했음에도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계속 집행한 결과 세출이 부족하게 됐고, 공공요금과 용역비 등 총 2141만4000원을 2022학년도 회계에서 집행해 회계 독립의 원칙을 위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수영장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을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사용료 조정 범위 및 사업자등록 보안을 위한 사용허가 매뉴얼 개선 ▲사용료 산출 통합프로그램 보급 등 수영장 업무경감을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중학생 10명 중 4명 “희망 직업 없어요”

교육부,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중·고등학생 장래희망 ‘교사’ 선호
고등학생 ‘대학 진학’ 희망비율 하락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초·중·고등학생은 장래희망으로 운동선수를,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교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래희망 순위는 대체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가운데, 중·고교생 10명 중 3~4명은 희망 직업이 없다고 답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지난 5~6월 전국 1200개 초·중·고교 학생·학부모·교원 등 총 3만848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초등학생 희망 직업은 응답자 12.9%가 ‘운동선수’를 꼽으며, 2018년부터 7년째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사(6.1%)였다. 이어 ▲3위 크리에이터(4.8%) ▲4위 교사(4.7%) ▲5위 요리사·조리사(4.1%) ▲

6위 경찰관·수사관 등으로 조사됐다. 중학생은 6.8%가 장래희망으로 ‘교사’를 꼽으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 운동선수(5.9%) 3위 ▲4위 경찰관·수사관(3.3%) ▲5위 약사(2.6%) ▲6위 간호사 등의 순이었다.

고등학생 장래희망도 중학생과 같이 1위가 교사(6.9%)였고, 2위는 간호사(5.8%)로 집계됐다. 고등학생은 ‘균인’이 지난해 11위에서 3위(2.7%)로 급상승했다. 이어 ▲4위 경찰관·수사관(2.7%) ▲5위 최고경영자(CEO)/경영자(2.5%) 등의 순이었다.

희망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초등학생 79.6% ▲중학생 60% ▲고등학생 71%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 희망 비율은 66.5%로 지난해(77.3%)보다 10%p 이상 하락했다. 대학 진학 희망 비율이 7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진로교육 현황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 진행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이현진 기자

오세훈 “비상계엄 가담자에 책임 물어야”

서울시장, 비상계엄 관련 브리핑 “극단적 방탄 국회, 사태 촉발 원인 제자리에서 추후 해법 고민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4일)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본령을 거스르는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민주주의는 보통 사람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고, 대한민국 역사 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행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에 가담한



오세훈 서울시장(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계엄사태와 관련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들에게 우리 민주주의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

다”며 “헌정사의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는 데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겼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행정 및 사법 탄핵의 극단적 방탄 국회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차제에 국가 운영 구조에 대한 재검점이 필요하다”며 “여당의 중진으로서 이번 사태의 추후 해법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일을 시작하겠다. 시민 여러분이 그랬듯 저와 서울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현정 기자 hjk10

안양시, 인구 55만명 회복... 청년정책 지속

3년 4개월 만에 인구 회복... 1.21%↑

최근 감소세를 지속해 온 안양시의 인구가 3년 4개월 만에 55만명을 회복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안양시의 인구는 55만1228명으로 집계돼 54만4660명이었던 지난해(12월)보다 1.21% 상승했다.

지난 2021년 6월 54만9903명을 기록하며 55만명을 하회한 이후 처음으로 55만명을 다시 넘겼다.

시 전체 인구 중 청년(19~39세)은 15만2968명으로 전년(15만1,664명) 대비 0.86% 증가했다. 청년 인구가 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8%다.

시는 이번 증가가 최근 관내 입주 물량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안양시의 올해 인구증가율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8번째로 높은 수치다.

시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인구수가 상승했다”라며 “아직 입주하지 않은 세대와 청년주택 공급 물량을 고려하면 청년 인구를 포함한 인구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청년주택을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2032년까지 3106세대 청년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양(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시, 잠실·성수에 ‘수열에너지’ 공급

도수관로 활용... 에너지 40% 절약

서울시는 도수관로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보급 민간대상지로 ‘잠실 스포츠·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

전시)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과 ‘성수동 K-프로젝트 복합개발 신축공사’ 총 2곳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도수관로는 수돗물 원수인 한강 물을 취수장에서 정수센터로 보내는 관이다.

잠실에는 1시간 최대 1만6000RT(냉동톤), 성수동에는 1시간 최대 3000RT의 수열에너지가 공급된다.

도수관로를 이용해 수열에너지를 제공하면 대형건물 외부에 냉각탑을 설치해야 하는 기존 냉난방 방식보다 약 40%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무 / 07:32 | 해짐 / 17:13

12월 5일 (木)
음력 : 11월 5일

수도권 날씨
-1 ~ 7°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4/6, 동두천 -4/7, 가평 -5/6, 파주 -5/7, 서울 -1/7, 양평 -4/7, 수원 0/7, 평택 -2/8, 인천 0/8, 용인 0/7

백령도 4/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기독교·천주교 잇단 성명... “尹, 사죄하고 사법적 책임져야”
▲‘장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사진 뉴스1

▲국세청, 조세포탈범 등 45명 인적사항 공개
▲장애인 선수 넷 중 하나, ‘인권 침해’ 경험



▲레스터 수장 판니, 데뷔전 승리... 웨스트햄 3대1 ‘격파’ /사진 뉴스1
▲출판인회의 “계엄령 선포, 민주국가 기본원칙 훼손”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SK telecom AI DC

GPU FARM H-100

AI에게는 새로운 집이 필요하다

SK텔레콤은 Farm이 있는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최신 AI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솔루션으로
누구나 AI를 누릴 수 있는 GPU Farm 기반의
GPU 클라우드 서비스(GPUaaS)를 시작합니다

거대한 GPU Farm이 있는 집,
미래를 혁신할 AI Infra의 새로운 길,
SK텔레콤의 AI Infra Super Highway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AI Infra G3로 성장할 대한민국을!

AI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힘
SK telecom